개정판

예수는 누구인가?

메시아 예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을 위한 호소

Who is Jesus?

A Plea for a Return to Belief in Jesus, the Messiah

Copyright @2013 by Anthony F. Buzzard, MA(Oxon), MA Th.

*이 책은 저자(Anthony Buzzard)가 2013년에 출판한 *Who is Jesus?*를 역자가 저자의 허락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하고 출판한 것임.

예수는 누구인가?

메시아 예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을 위한 호소

성서적 신앙의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소책자

앤서니 버저드 지음

정형철 옮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5)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쉽

www.restorationfellowship.org

저자 **앤서니 버저드 (Anthony Buzzard)**, MA (Oxon), MA Th는 유니테리언 기독교 신학자이며 애틀란타 바이블 칼리지 (Atlanta Bible College)의 교수이다. 처치 오브 갓 제너럴 컨퍼런스 (Church of God General Conference)와 제휴된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쉽 (Restoration Fellowship)을 1981년에 설립했고 "포커스 온 더 킹덤" (Focus on the Kingdom)이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를 매월 발간하고 있다. 버저드의 강의와 설교영상들을 RF <www.youtube.com/RestorationFellowship>에서 볼 수 있다.

역자 **정형철**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근대영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 (University of Georgia)에서 비교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일러두기

*원문에는 저자의 주가 미주(endnotes)로 책 뒤에 일괄 정리되어 있지만 편의상 하주(footnotes)로 처리했다.

*역주 (translator's notes)는 ①, ② ③... 과 같은 숫자로 표시하고 본문 속에 삽입했다.

*원문에 출처만 괄호 속에 나타낸 성경구절들 가운데 일부는 (*)로 표시하고『성경전서』개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에서 찾아 인용했다.

목차

머리말/--9

예수와 바울이 확증한 구약성경의 유일신론/--15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누가 말했는가?/--25

하나님의 아들/--33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 편에 계신 주/--39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43

요한의 유대 언어/--49

아브라함 이전의 영광/--55

요한복음 1:1의 로고스/--61

예수의 “신성”/--67

하나님의 형상으로/--71

새로운 창조의 머리/--79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83

신약성경의 히브리 배경/--89

하나님의 아들에서 아들 하나님으로/--93

모호해진 그 사람과 메시지/--97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들/--103

예수, 인간과 중재자/--111

교회의 신앙 고백/--113

부록/--115

옮긴이의 말/--123

머리말

예수가 성서에 의하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①이 아니라는 시사는 주요 기독교 교파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들에 익숙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가능성이 많다. 주목할 만한 오늘날의 다수 학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성서 연구자들은 성서가 예수를 대문자 “G”로 쓰는 “하나님”(God)으로 설명한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데, 이것은 대체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다.

① 기원 325년 제 1차 니케아 공의회(Council of Nicaea)에서 채택한 신앙고백문 니케아 신경(Symbolum Nicaenum)에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며....”(very God of very God...)라는 표현이 나온다. 키건 A. 챈들러(Keagan A. Chandler)는『예수의 하나님』(*The God of Jesus*)에서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이 표현이 비성경적(non-biblical)이라고 말한다(246). 그 공의회에서 예수를 창조된 존재로 보는 아리우스(Arius)파가 이단(Heresy)으로 파문당하고 아타나시우스(Athanasius)파의 삼위일체주의(Trinitarianism)가 공인되어 정통(Orthodoxy)이 되었다. 이후 로마 교회의 정치권력의 유지와 증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견해들을 모두 이단으로 지명하고 배척하게 되었다. 삼위일체주의에 대해서는 데일 터기(Dale Tuggy)의『삼위일체란 무엇인가?』(*What is the Trinity? Thinking about the Father, Son, and Holy Ghost*)를 참조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

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에 대한 믿음과 삼위격적 하나님(a tripersonal God)에 대한 믿음을 구별하면 많은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터기는 성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인간인 메시아(Messiah)/그리스도(Christ)로, 즉 기름 부음 받은 존재(the anointed)인 구원자로 제시하고 있으며, 하나님 그 자신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옹호한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의 차이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도전받게 된다. 성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숭배가 "영과 진리② 안에서"(요한 4:24*) 이루어져야 한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한 4:24).

② "진리"(truth)는 그리스어로는 "알레테이아"(alētheia), 즉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기"(unconcealedness)의 뜻이다. "히브리어로는 "에메트"(emeth)인데, 에메트는 토라(Torah)를 상징적으로 가리킨다는 설명도 있다.

성서는 우리가 "다른 예수"(고린도후서 11:4*)를 믿게 되는 위험, 즉 성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에 의해 약속된 메시아로 계시된 존재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고린도후서 11:4).

예수가 자신을 결코 "하나님"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또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③이라는 단어, 그리스어로는 "호 테오스"(*ho theos*)라는 단어가 약 1,325번이나 "아버지" 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조적으로 예수는 단지 소수의 본문들, 즉 두 개의 본문들④에서만 "신"(god)으로 [혹은 "하나님"(God)으로] 불려진다.[1]

③ 한국에서는 대체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으로 쓰고 있다. 이 두 낱말의 어원은 "하나"라기보다 "하늘"과 연관된다. 『천주실의』(天主

1 불트만(Bultmann)은 예를 들면 『철학적 신학적 에세이』(*Essays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p.276에서 요한복음 20:28이 신약성경에서 "신"(god)이라는 호칭을 예수에게 적용한 유일하게 분명한 경우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8이 두 번째의 명백한 경우라고 동의할 것이다. 『뉴 어메리컨 성서』(*New American Bible*)의 주의 깊은 번역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오 신이여, 당신의 왕좌가 영원하리니" (시편 45:6). 성서의 하나님은 수천 번 단수 인칭 대명사 "나"(I), "당신"(You), "그"(He) 등으로 지칭된다. 단수 인칭 대명사들은 단일한 개성적 존재를 묘사하는 것이지 세 명의 개성적 존재들을 묘사하지 않는다. 성서에서 거의 4,400번 가량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낱말은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세 위격들 [혹은 세 개성적 존재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이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성서는 결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과 이질적이다.

實義)에서의 “천주”가 유교에서의 “상제”(上帝)와 같이 “하늘”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시편 82:1의 한글 번역이 “하나님[God]은 신들[gods]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God)과 “신”(god)으로 구별해서 쓸 수 있다. 히브리 성경 혹은 구약성경에서 신을 뜻하는 “엘로힘”(Elohim)은 복수의 경우는 이방 신들을 뜻하고 단수로 사용되면 이스라엘의 하나의 신, 편의상 “야훼”로 부르기도 하는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다. 조철수는 『예수평전』에서 자신은 “고대근동 문화의 전통적인 하늘 신 신관에서 이해되는 언어로 엘로힘을 하느님으로 표기한다”고 쓰고 있다(15).

④ 두 개의 본문이라고 한 것은 주 1에 언급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한 20:28)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珪 scepter]는 공평한 규니이다”(히브리서 1:8)이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라고 했을 때 도마가 “주”와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향해 한 말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삼위일체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구절이다. 그러나 요한 1서 4: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에서 요한이 말하듯이 도마가 예수를 보며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읽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하나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한 14: 9)고 한 부분과 관련하여 읽을 필요가 있다. 키건 A. 챈들러는 “요한 20:28은 결코 지배적인 삼위일체적 본문이 아니라 단지 요한 14장에서의 예수의 이전 가르침의 해답일 뿐이다. 도마가 말한 ‘나의 주’는 그의 앞에 서 있는 예수에게 적용되고 ‘나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활동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적용된다”(『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 420)고 쓰고 있다. 히브리서 1:8은 시편 45:6을 인용하는 것인데, “시편 45편의 시인은 다윗 가문 출신의 왕을 사모하면서 그 왕을 하나님으로, 그의 통치(보좌)를 영원한 것으로 지칭한다”(『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독일성서공회 해설 353)는 해설을 참고할 수 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의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와 같은 현격한 차이가 신약성경의 용례에서 드러나는 것인가?

예수와 바울이 확증한 구약성경의 유일신론

20세기 성경 독자들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구약성경의 가르침의 첫 번째 원리인 유일신론(monotheism)⑤의 힘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른다. 유대인들은 참된 하나님은 유일한 개성체(Person)⑥라는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격(Godhead)⑦의 복수성이라는 관념은 무엇이든지 위험한 우상숭배로 간주되어 거부되었다.

⑤ "삼위일체론적 유일신론"(Trinitarian monotheism)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삼위일체주의에서도 유일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5:44에서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통일성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유니테리언 유일신론"(Unitarian monotheism)과는 다르다. 이 유니테리언 유일신론은 "단일신론"(Monarchianism)이라고 할 수 있다. 삼위일체론은 단일신론이라기보다 삼신론적(tritheistic)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린도후서 13:13)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태 28:19)에서 삼위일체적 언어가 등장하지만, 예수의 초기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2:38, 8:16, 10:48 등). 오리건 주립대학교 교수였으며 성공회 트리니티 대성당의 주임 신학자였던 마커스 J.보그(Marcus J. Borg)가 말하듯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중적 유일신교, 즉 초월성(transcendence)과 내재성(immanence)을 동시에 지니는 유일신교에서 삼중성(threefoldness)을 지닌 유일신교로 변형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결정적 계시라는 점, 즉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결정적 계시를 본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김태현 역 308).

⑥ 삼위일체론에서도 쓰이는 영어단어 "person"이 "human being"의 뜻으로 쓰이므로 "인격" 혹은 "인격체"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고 삼위일체론에서는 "위격"(位格)으로 옮겨진다. 이 책에서는 "인간"은 아니지만 자아의식이 있고 지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라는 뜻을 나타낼 경우 "person"을 "개성적 존재" 혹은 "개성체"로 번역하기로 한다. 그리스어로는 휘포스타시스(hypostasis)이며 "person"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페르소나"(persona)는 "가면"(mask)을 뜻한다 (어원적으로는 "....을 통해 이야기하다"의 뜻이다).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가면"으로, 즉 세 가지의 역할과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삼위일체론이 설명되기도 한다. 마커스 J. 보그는 삼위일체의 외재적(external) 의미와 내재적(internal) 의미를 구별하고, "그리스도인에게 한분 하느님이 세 가지 역할과 방식---창조주이자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으로 알려지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그는 세 위격들 사이의 내재적 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외재적 의미에 주목하여 "하느님은 한 분이다 (그리스도인은 유일신을 믿는다). 한 분 하느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삼위일체론을 설명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308-310). 이것은 정통 삼위일체론에서 부정되는 양태론(Modalism)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⑦ 골로새서 2:9: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에 나

오는 "신성"은 "테오테토스"(Theotētos)로서 "신격"(Godhead) 혹은 "신위"(Deity)라는 뜻이다. 그것은 로마서 1:20: "창세로부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에 나오는 "신성"은 "테이오테스"(theiotēs), 즉 "신성"(divinity)으로서 구별되지만, 개역개정한글판에는 둘 다 "신성"으로 되어 있다.

율법과 예언자들은 반복적으로 '단지 한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다음과 같은 성경 본문들을 온전히 기억하게 되면 그 누구도 신격 안의 "구별들"을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뉴 어메리컨 스탠더드 성서』(*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 인용)

"들으라, 오 이스라엘이여! 주 하나님은 한 분 주이시다"(신명기 6:4).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우리는 모두 한 분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는가?"(말라기 2:10).
(Do we not all have one Father? Has not one God created us?")

"내 앞에 어떤 하나님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이사야 43:10).
(Before Me there was no God formed, and there will be none after Me.)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존재가 없다"(이사야 45:22).
(I am God, and there is no other.)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자가 없다"(이사야 46:9).
(I am God, and there is no one like Me."

엄밀하게 유일신론적인 진술들의 예들은 구약성경에서 더 많이 찾아 나열할 수 있다. 주목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가 기독교의 창시자로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구약성경의 주장을 확증하고 강화했다는 점이다.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해 수집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들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에 대한 믿음을 흔들만한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한 유대인 율법학자(신학자)의 유명한 말,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분 외에 다른 분은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는 그가 "지혜롭게 말했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칭찬했다(마가 12:29-34*).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마가 12:29-34).

예수의 사유에 대한 요한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는 그의 유대적 유산인 부정할 수 없는 유일신론을 오해될 수 없는 말로 확증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요한 5:44*), "유일한 참된 하

나님”(요한 17:3*)이라고 말했다.⑧

*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요한 5:44).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 17:3).

⑧ 세계의 신적인 가장(家長)에 대한 표상이 된 유일신론이 지상의 지배자들, 독재자들, 전제자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종교적 원형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 삼위일체론(Trinitarianism)의 형성은 종교적 유일신론이 정치적 유일신론으로 변천하며, 정치적 유일신론이 절대주의로 변천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단 하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단일군주제도에 대한 표상을 극복할 때만이 가능하다”(위르겐 몰트만『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김균진역 대한기독교서회 2017, 308)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론의 긍정적 의의를 찾는 시각이다. 몰트만의 사회적, 공동체적 삼위일체론은 특히 상호침투, 상호순환, 상호내재의 의미인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 개념을 활용하여, 지배와 억압이 없이 하나를 이루는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에 이 삼위일체론이 기여한다고 본다. 이러한 설명은 신학적인(theological)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서적인(Biblical)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성서적 유니테리어니즘(Biblical Unitarianism)의 입장이다.

기록된 그의 담론들 전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버지에게만 적용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면 부조리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들렸을 것이다. 요한복음

5:44와 17:3에 보이는 예수의 일관된 유일신론적 어법은 하나님을 유일한 독특한 개성적 존재로 보는 구약성경의 견해를 반영한다. 우리는 바울이 지닌 유대적 구약성경의 정통파적 정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고린도전서 8:6*)에 대한 그의 기독교적 믿음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그 자신 인간인 메시아 예수"(디모데 전서 2:5*)와 구별되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와 바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단일한, 창조되지 않은[스스로 있는] 존재였다 (에베소서 1:3*). 예수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고양(高揚)되고 난 이후에도 아버지는 예수 자신의 말에 보이듯이, 그의 하나님이다(요한계시록 3:12*).

*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린도전서 8:6).

*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디모데전서 2:5).

*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에베소서 1:3).

*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요한계시록 3:12).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를 요약하기 위해 한 때 뱅고르 신학교(Bangor Theological Seminary)의 교회사 교수였던 L.L.페인(L.L. Paine)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구약성경은 철저히 유일신론적이다. 하나님은 단일한 개성적 존재이다. 삼위일체설을 구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는 관념은 신학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인 가설이었지만, 결코 근거가 없다. 유대인들은 한 민족으로서 모든 유형의 다신교적 경향들에 대한 철저한 반대자들로 교육을 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단호한 유일신론자들이다. 이 점에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간의 어떠한 단절도 없다. 유일신론적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예수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성경 경전들을 통해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그의 가르침은 속속들이 유대적이며,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이다. 그는 '율법과 예언자들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고 선언했으며, 유대적 유일신론의 위대한 본문, 즉 '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를 그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에 대한 예수의 선포는 구약성경의 예언과 일치한다. 그는 약속된 나라의 '메시아'이며, 유대적 희망의 '사람의 아들'이다.... 그가 때때로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말하는가?'라고 물었다고 해도, 그는 메시아신분에 대한 함축적 긍정 외에 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삼위일체설 진화의 비판적 역사』*A Critical History of the Evolution of Trinitarianism*, 1990. pp.4, 5).

유일신론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에 내포된 힘은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 의해 잘 예증된다.

삼위일체에 대한 기독교적 믿음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 개성적 존재들로 구성된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통일성에 대한 순전한 개념화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러 시대에 걸쳐 자신이 세계에 준 순전한 유일신론 개념화를 훼손하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거부해 왔고, 그 유일신론을 약화시키는 것들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기 보다는 차라리 방랑하고, 고난을 받으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랍비 J.H. 헐즈 Rabbi J.H. Hertz).

에즈라 D. 기포드(Ezra D. Gifford)는 『참된 신, 참된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성령』(*The True God, the True Christ, and the True Holy Spirit*)에서 "유대인들 자신들은 그들의 경전들이 정통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어떠한 증거나 암시를 포함한다는 함축을 진지하게 부인한다. 이 주제에 관한 예수와 유대인들의 관점은 결코 다르지 않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단지 한 분이고 이것이 인간에게 제시된 가장 위대한 진리라는 점을 주장한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 기원 60년대로부터 80년대까지의 사도교회(the apostolic church) [부활한 예수에 의해 사도들에게 "지상위임"(the Great Commission)이 주어진 이후의 사도시대(Apostolic Age)의 교회]의 이해를 대변하는 문서들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서들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들을 조사하면, 우리는 예수가 자신을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온 창조되지 않은 존재로 믿었다는 어떠한 암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마태와 누가는 하나님에 의한 특별한 창조행위를 통해 메시아의 잉태가 마리아의 태내에서 발생했을 때로부터 예수의 기원이 시작된 것으로 추적한다. 이 기적적인 사건이 나사렛 예수의 시작, 즉 생성 혹은 기원의 표식이다 (마태 1:18, 20*).

*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마태 1:18, 23).

잉태 이전부터 예수가 "아들"로 존재했었다고 암시하는 "영원한 아들신분"(eternal Sonship)[2]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런 관념은 신약성경 문서들이 완성된 이후에 기독교 사회로 도입되었다. 그것은 성서 필자들의 사유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

2 "아들의 영원한 생성"이라는 구문은 정통 삼위일체론의 요체인데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생성한다는 것은 실존하게 한다는 것인데, 영원성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아담 클라크(Adam Clarke) 박사의 저항과 비교해 볼 것. "나와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 충분히 존중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허용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즉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들신분 교리는 나의 의견으로는 비성경적이고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영원성으로부터 생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조리하고 '영원한 아들'이라는 구문은 분명한 자기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영원성'이란 시작이 없다는 것이고 그 어떤 시간과의 연관성 속에 있을 수 없다. '아들'은 시간, 생성, 아버지를 상정한다. 그리고 그런 생성에 선행하는 시간도 상정된다. 그러므로 '아들'과 '영원성'이라는 두 용어들을 결합하는 것은 그 둘이 본질상 다르고 대조적인 관념들을 함축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누가복음에 대한 『논평』 *Commentary* 1:35). 버스웰(J.O. Buswell) 박사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영원한 관계로서의 '생성'에 관해서는 무엇이든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쓰고 있다 (『기독교 종교의 조직신학』 *A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Religion*, Zondervan, 1962, p.111).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누가 말했는가?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은 잘 확립된 일련의 전제들을 지니고 그 신성한 기록들을 접근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의 많은 부분이 성서[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외부의 저자들에 의해 고안된 신학적 체계들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성서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권위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이해방식을 상당히 많이 쉽게 수용한다.[3]

우리가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무슨 근거로 예수와 초기 교회가 예수가 참으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주장했는가? 답은 간단하다. 그런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구약성경이 메시아에 관해 예언했던 역할을 예수가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다. 히브리 예언 속에 메시아에 대해 설정되었던 "상세한 항목들"과 예수가 얼마나 잘 부합되는가 하는 것

3 나는 다음과 같은 브루스(F.F. Bruce)의 날카로운 관찰에 빚지고 있다. "'오직 성경에만'(*Sola Scriptura*) 관심을 고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이 믿는데) 흔히 사실은 '오직 성경에만'이라는 해석의 전통적 학파에 고착한다. 복음주의 신교도들은 로마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정도로 전통의 하인들일 수 있다. 단지 그들은 그것이 '전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서신문에서)

이 증명되어야 했다. 마태는 특히 예수의 생애와 경험과 관련된 사실들 속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이 나오는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마태 1:23, 2:6, 15 등등). 그러나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앞부분 장들에서) 마찬가지로 예수가 메시아에 대한 구약성경의 묘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역설한다.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의 많은 부분을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점을 히브리 경전들을 통해 입증하는 데에 할애했다 (사도행전 28:23*).

*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사도행전 28:23, 31).

예수의 아이덴티티가 그에 대한 구약성경의 묘사와 일치되지 않는다면, 메시아신분에 대한 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든 메시아가 "동등한 하나님"(coequal God), 즉 창조되지 않은 두 번 째 존재로서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존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자라고 암시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구약성경이 이런 식의 견해를 전혀 말하지 않는다면, (또한 구약성경이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지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창조되지 않은 신격의 두 번째 영원한 개성적 존재로서 전적인 의미의 "하나님"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보는 그

어떤 주장도 의심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히브리 성경에서 그려지는 메시아상은 무엇인가? 신약성경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신분에 대한 예수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할 때 즐겨 인용하는 것은 신명기 18:18, 즉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드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이다. 베드로 (사도행전 3:22)와 스데반 (사도행전 7:37) 두 사람은 모두 예수가 "그 약속된 예언자"(요한 6:14*)라는 것을, 즉 그 기원이 이스라엘 가문에 있고 그 기능은 모세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 근원적 본문을 사용했다.

*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요한 6:14).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즉 오랫동안 약속된 신의 신성한 대변자, 이스라엘과 세계의 구원자를 일으켜 세웠다. 베드로의 말을 인용하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사도행전 3:26).

다른 고전적인 메시아적 본문들은 "한 아들이 이스라엘에 태어날 것이다"(이사야 9:6), "여자의 씨"(창세기 3:15), 아브라함의 후손 (갈라디아서 3:16*), 그리고 다윗왕가의 후손(사무엘하 7:14-16, 이사야 11:1*) 등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통치자일 것이다(마태 2:6,* 미가 5:2*).

*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라"(갈라디아서 3:16).

*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이사야 11:1).

*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마태 2:6, 15).

*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미가 5:2).

그에 관한 몇 가지 칭호들 중에는 "[강한 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사야 9:6*)가 있다.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이 이사야 9:6에 나오는 본문 표현 때문에 메시아가 창조되지 않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이것은 물론 유일신론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예민하게 읽는 독자라면 그 본문 하나 때문에 유일한 개성적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구약성경의 지속적인 주장을 전복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신성한 신탁들이 유대인들에게 위임되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신성한 호칭이 부여된 메시아 왕을 이제 갑자기 신비롭게 "두 개의" 개성적 존재 [위격]들로 이루어진 영원한 신격의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탱해 왔던 모든 전통적 견해와는 모순된 것이다. 이사야 9:6에 보이는 "강한 신"[개역개정 한글판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요한 히브리 어휘사전에 의하면 "신성한 권위를 반영하는 신성한 영웅"이라는 뜻으로 정의된다. 동일한 어휘사전은 이사야가 사용한 "신"이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천사들만이 아니라 "권능과 지위를 지닌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도 쓰인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원한 아버지"의 경우 이 호칭은 유대인들에 의해 "다가올 시대의 아버지"[4]로 이해되었다. 사람의 아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아버지"(이사야 22:21)가 되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었다.

시편 45편에서 "이상적" 메시아 왕은 "신"[하나님]으로 호칭되었지만 그 때문에 유대적 유일신론이 손상된다고 여길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신"(여기서는 *elohim*)이라는 단어는 한 분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스러운 장소들에서의 신성한 대표자들 혹은 신성한 권능과 능력을 반영하는 대표자들"에게도 적용되었다 (Brown, Driver, Briggs의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p.42,43). 시편 필자와 (히브리서 1:8)에서 그를 인용한 히브리서의 필자는 그들이 메시아 왕을 묘사하기 위해 "신"[하나

4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전들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 그 히브리 표현으로 옮겼다.

님]이라는 단어를 특수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알고, 메시아 왕의 "하나님"이 자신의 왕족의 특권들을 그에게 부여했다고 곧바로 덧붙였다(시편 45:7*).

*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시편 45:7).

메시아의 기원에 관해 자주 인용되는 미가서 5:2의 본문조차도 어떤 유형의 문자적, 영원한 선재(先在 preexistence)설도 수반하지 않는다. 같은 미가서에 나오는 유사한 표현을 보면 야곱과 맺은 약속이 "옛적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미가 7:20*).[5]

*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미가 7:20).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인간 역사의 초기에 이미 이루어졌다 (창세기 3:15*, 창세기 49:10*, 민수기 24:17-19* 등과 비교).

---

5 카우치(E. Kautzsch)의 소견과 비교할 것. "미가서 5:2의 언급은 동떨어진 고대에 대한 것이고, 신명기 32:7은 이것이 마치 말해진 것의 대상이 메시아의 영원한 선재인 것처럼 ('영원성의 날들'이 아니라) '오래된 날들'이라는 뜻임을 보여준다"(『해스팅스 성서 사전』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extra vol., p.696), 『펄핏 논평』 *Pulpit Commentary* (미가서, p.82)은 "영원한 생성은 인간적 관점에서 말하면 신학적 허구이며, 철학적 부조리이다".

*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15).

*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세기 49:10).

*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민수기 24:17-19).

예수의 메시아신분에 대한 질문을 예수 자신과 사도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알아보면,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영원한 불멸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약속된 왕이 되기 위해 인간이 된다고 암시하는 방식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전혀 찾을 수 없다. 그 왕은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도록 정해졌었다(사무엘하 7:13-16*, 이사야 7:14*, 마태 1:23). 그리고 그와 같이 어거스투스(Caesar Augustus) 황제 [로마제국의 첫 번째 황제, BC 27-AD 14] 통치 동안에 메시아가 등장했다.

*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고" (사무엘하 7:13-16).

*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오래 지속된 많은 혼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때문인데, 그 혼란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지 않은 존재 혹은 영원한 신격의 구성원을 뜻하는 것이라고 믿은 전통적 사고의 전제로부터 유래된다. 그런 관념은 결코 성경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관념이 그토록 집요하게 지속되는 것은 신학적 세뇌 혹은 사상 주입의 영향력을 입증한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메시아를 뜻하는 동의어로서 대안적인 호칭이다.⑨ 그렇게 요한은 그가 쓴 복음서 전체를 하나의 지배적인 주제, 즉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 바친다 (요한 20:31*).

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에 대해 마커스 J. 보그는 “구약성서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호세아 11:1), 왕을 뜻하기도 하며 (시편 2:7), [천사들과 같은] 천상의 존재를 뜻하기도 한다(욥 1:6, 2:1). 예수 시대에 이르렀을 때 이 말은 신비가나 치유자 같은, 유대인 성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관한 모든 용례에서 공통적인 점은 하느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맺은 누군가를 가리킬 때 이 말이 쓰인다는 점이다”(『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144)

고 쓰고 있다. 또한 보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론적 이미지들(Christological images)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잉태된 것으로 보는 예수의 출생 이야기에서의 생물학적 은유(biological metaphor)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동일본질이 된 것으로 보는 형이상학적 혹은 존재론적 주장(metaphysical or ontological claim)과 함께, 아들과 그 부모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관계적 은유(relational metaphor)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일차적으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예수의 의미: 역사적 예수에 대한 두 신학자의 논쟁』 김준우 역 234-236).

*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20:31).

이 칭호들["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을 일치시키는 것의 근거는 자주 언급되는 구약성경의 구절, 즉 시편 2편이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서로 꾀하여 야훼 (주 LORD)와 [야훼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임명하신]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아*Messiah*)를 대적하며"(시편 2:2)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시편2: 7, 8)라고 한 부분이다. 예수는 그 시편 전체를 망설이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안에서 민족들을 통치하게 될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본다(요한계시록 2:26, 27*).[6]

6 대부분의 신학적 체계의 약점은 계시록에서 예수에게 귀속된 진술들 속에서 그 스승의 말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을 거부하는 데에 있다.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론을 무

*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요한계시록 2:26, 27).

베드로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마찬가지로 동일시하는데, 그때 신성한 계시를 통해 그는 예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 16;16).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질문한다.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마가 14:61).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왕 (요한 1:49), 메시아 (요한 1:41),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요한 1:45,* 신명기 18:15-18*과 비교)라고 이해한다.

*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시하면 그 계시록 1:1에서의 예수의 주장은 부인되고 왜곡된 그리스도론으로 귀결된다.

임금이로소이다"(요한 1:41, 45, 49).

*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야훼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신명기 18:15-18).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천사들에게도 적용된다(욥기 1:6,* 2:1,* 38:7, 창세기 6:2, 4*, 시편 29:1, 89:6, 다니엘 3:25). 또한 아담(누가 3:38),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기 4:22*),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요한 1:12*).

*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욥기 1:6).

*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야훼 앞에 서니"(욥기 2:1).

*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에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2, 4).

*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출애굽기 4:22).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 1:12).

이 직함이 창조되지 않은 존재, 영원한 신격의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예를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다. 그런 관념은 신성한 아들신분에 대한 성서적 관념에서는 다만 부재할 뿐이다.

누가는 신성한 아들로서의 예수의 신분이 처녀의 태내에서 잉태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점을 잘 안다. 그는 그 어떤 영원한 기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누가 1:35). 시편 필자는 메시아의 아들신분의 기원이 확정적인 순간, 즉 “오늘”(시편 2:7)이라고 본다. 메시아는 기원전 3년경에 태어났다 (마태 1:20, 누가 1:35). 그의 탄생은 그와 같이 역사상의 출현과 연결된다 (사도행전 13:33*. 제임스왕역 제외). 그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었다 (히브리서 1:5*, 요한1서 5:18, 제임스왕역 제외).

*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사도행전 13:33).

*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

냐"(히브리서 1:5).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성경의 이 구절들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예수의 아들신분에 대한 성서적 관념이다. 아들신분, 그것은 예수의 잉태, 부활, 혹은 그의 왕 신분의 임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들신분에 대한 누가의 견해는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한 여성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는 희망과 분명하게 일치한다(마태 1:1, 누가 3:38). 우리가 조사했던 성경 본문들은 그 아들이 영원 속에서 개성적 존재 [개성체]로서 선재(a personal preexistence)했다는 것에 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 편에 계신 주

예수는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10]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했다.

⑩ 인자(人子) 혹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어로 "호 휘오스 투 안트로푸"(ho huios tou anthrõpou)인데 "호"가 정관사이므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일종의 완곡어법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김용옥은 "단순히 심각한 실존적 결단이나 수난의 예언을 나타내는 말을 할 때 평범한 1인칭을 쓰지 않고 3인칭적인 표현으로 에두르는 것이,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용구적인 습관이었다"(『도올의 마가복음 강해』 434)고 쓰고 있다. 또한 조철수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본래 히브리어로는 "벤 하아담"(Ben HaAdam)으로서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로마서 5:14에서 "...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한 부분과 관련하여 예수가 새 아담 혹은 제2의 아담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한다 (『예수평전』 215).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도 메시아신분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그 점은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엄숙하게 긍정할 때 동일한 어조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마가 14:61, 62)을 대제사장이 보게 될 것이라고 부

연함으로써 더욱 분명해 진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가장 잘 묘사되는 곳은 다니엘 7:13, 14*인데, 그곳에서 인간 형상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세상 지배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 “내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다니엘 7:13, 14).

시편 2편과의 평행이 분명한데, 시편 110편과의 긴밀한 연결도 마찬가지이다. 다윗은 그 구절을 통해 세계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임명받고 “적들 가운데에서 지배하게” 될 때까지 주님(Lord)(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는 “주”(lord)(메시아)에 대해 언급한다 (시편 110:2*, 마태 22:42-45* 비교).

*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시편 110:1, 2).

*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지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애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마태 22:42-45).

사람의 아들은 시편 80:17, 즉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메시아와 연결된다.

신약성경의 필자들이 시편 110편을 약 23번 인용하고 그것을 예수에게 적용하여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인데, 그때 예수는 이미 메시아적 주로서 불멸성의 존재로 고양되어 시편 필자가 예견한 것과 같이 아버지의 오른 편으로 올라가셨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영원한” [신 혹은 천사로서 영원 전부터 선재한] 아들신분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설명적 호칭들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 놀라운 사실은 모든 지역의 성서연구자들이 예수에 관해 배웠던 것과 성경에 의해 제시된 예수를 비교해 보도록 인도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영원 전부터 선재한]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관한 성서의 설명과 부합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예수를 지상에서 일시적인 생애를 마친 영원한[영원 전부터 선재한] 존재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잘못 보는” 것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요한의 복음서는 예수의 아이덴티티를 주요한 주제로 담고 있다. 요한은 하나의 주된 목적을 지니고 복음서를 작성했다고 말하는데,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20:31)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17:3*, 5:44, 6:27과 비교)이신 아버지와 자신을 조심스럽게 구별했다.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 17:3).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이 "동등한" 존재라는 삼위일체론적 증거를 요한의 기록에서 찾고자 한다면, 요한의 의도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요한 자신의 유대적 전통의 관점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삼위일체적 견해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단지 아버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요한 5:44*, 17:3) 요한 자신의 (그리고 예수의) 주장을 전복시키고 구약성경과도 모순된 새로운 메시아신분에 대한 상을 요한이 소개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요한 5:44).

그러한 명백한 자기모순은 결코 있음직하지 않은 일이다.[7]

이제 예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명백히 구약성경의 엄밀한 유일신론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가 12:28-34*).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마가 12:29-34).

---

7 "요한이 신약성경에서 유대교의 근본적 교리에 대한 어떤 증인들 못지않게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증인이라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로마서 3:30, 야고보서 2:19 비교). 유일한 참된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요한 5:44, 17:3)" (로빈슨 J.A.T. Robinson, 『열두 개의 추가 신약성경 연구』*Twelve More New Testament Studies*, SCM Press, 1984, p.175). 예수는 아버지를 "참된 하나님인 유일한 한 분" (요한 17:3)이라고 지칭한다. 그런 진술들이 모든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단지 아버지만이 한 분 참된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고 요한이 말함으로써 유일신론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인가? 요한복음 10:34-36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게 제시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는 자신의 지위를 구약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 대변자의 역할로 규정했다. 예수는 자신에 대한 이러한 판단을 "아버지와 하나" (요한 10:30)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시했다. 그것은 "기능"의 동일성으로서 그것에 의해 아들은 완전하게 아버지를 대변하는 것이다.⑪ 그것이 바로 아들 신분에 대한 구약성경의 이상인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불완전하게 그 이상을 실현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왕인 메시아에 의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었다.

⑪ 마커스 J. 보그는 "예수는 하나님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아닙니다. 심지어 신약성경 조차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등으로 말하지, 결코 그를 하나님과 단순하게 동일시하거나 같게 여기지 않습니다. ... 그는 한 유한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놀라움과 경이의 나날들』 *Days of Awe and Wonder* 김기석/정준화 역 153-154)라고 대답한다. 그는 같은 책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바라본다"(160)고 말한다.

요한복음 1:29-38에서의 논쟁은 다음과 같다. 예수가 그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장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 됨은 협력과 기능의 동일성으로서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과 아버지에 대해 원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동일성이다 (요한 17:11, 22*).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한 17:11, 22).

이 때문에 예수가 자신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의 말은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요한 10: 36*)이라고 주장한 것으로서, 그것은 메시아와 동의어로 인정되는 것이었다. 아들신분에 대한 주장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는 논박했는데,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대표자들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신들" (시편 82:6*)로 호칭되었다는 잘 알려진 사실을 고려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요한 10:36).

*"내가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간 사사(士師)]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시편 82:6).

영원한[창조되지 않은] 아들신분에 대한 주장을 확립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예수는 자신의 직분과 기능을 사사들의 그것과 비교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고, 유일한 메시아이며,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자로서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존재이기 때문에, "탁월한"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간주했다. 그러나 예수의 자신에 대한 설명 속에는 구약성경의 유일신

론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며 신명기 6:4*의 성스러운 본문을 고쳐 쓸 필요성도 전혀 없다. 예수의 자기이해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적 계시가 부여하는 엄밀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신명기 6:4).

그렇지 않다면 메시아라는 자신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고, 성경 경전들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요한의 유대 언어

예수가 요한복음 10:34-36에서 분명하게 자신은 하나님(God)이 아니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자신의 말과 모순되는 것을 주장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요한의 복음서는 마음속에 특정의 자명한 원리들을 확고하게 새기면서 조사해야만 한다. 예수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요한 17:3)과 구별된다. 아버지 한 분만이 하나님이다(요한 5:44*).

*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요한 5:44).

요한은 그의 기록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이 쓴 모든 것들은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 (요한 20:31*)이라는 하나의 위대한 진리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 20:31).

예수 자신이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신"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쓸 수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동격의 하나님 신분"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수 자신의 자기호명은 명백히 "하나님의 아들" (요한 10:36)일 뿐이다. 요한복음 10:24, 25*에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명백히"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요한 10:25).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다"고 자주 언급한다. 그 구문을 읽으며 평균적인 독자는 요한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 침례자 요한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것이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요한 1:6). 일반적으로 예언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 (사사기 6:8,* 미가 6:4*).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사사기 6:8).

*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미가 6:4).

그리고 제자들 자신들도 예수가 "보내진" 것과 같이 "보내지게" 될 것이

었다 (요한 17:18*).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이전 삶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데, 그것은 예수의 몸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떡]”으로 묘사될 때 그것이 문자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 아닌 것과 같다 (요한 6:50, 51*).

*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요한 17:18).

*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요한 6:50, 51).

[바리새인](Pharisee) 니코데무스(Nicodemus)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했지만 (요한 3:2), 예수가 선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세상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 예언자에 대해 말할 때 (요한 6:14, 신명기 18:15-18과 비교),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아있었다고 뜻하지는 않는다. 야고보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 1:17)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예수와 유대인들이 신성한 기원을 생생하게 묘사할 때 쓰는 문자적 방식인데, 그것은 처녀 잉태에 의한 탄생을 통해 예수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이었다.

요한복음에 있는 “선재” 진술들은 (요한 3:13,[8] 6:62*) “사람의 아들”과

8 대신으로, 예수의 “승천”은 신성한 비밀들에 대한 그의 지성을 지시하는 것일 수 있다 (잠언 30:3,4 비교).

결합되는데, 그것은 인간을 뜻한다.

*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요한 6:62).

이 성구들로부터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지상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하늘에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있었다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런 종류의 설명은 다니엘이 [예수 탄생] 600년 전에 환상 속에서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 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주목하면 불필요하다. 그 오른 편 자리는 신약성경에서 예수가 [지상에서 태어나기 이전이 아니라]부활과 승천 이후에 얻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메시아로서 예수는 자신이 나중에 하늘로 고양되도록 정해진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니엘의 영감 받은 환상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영광 속에서 재림하기 이전에 메시아가 처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미래에 다시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확실히 [이 땅에] "선재"한다.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탄생하기 이전에 다니엘이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예수는 "고양된 인간," 즉 사람의 아들로서 이전에 환상으로 나타났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 편으로 승천되기를 기대했다 (요한 6:62).⑫

⑫ 에릭 H.H.장(Eric H.H. Chang)은 『유일한 참 하나님: 성서적 유일신론 연구』(*The Only True God: A Study on Biblical Monotheism*)에서 요한복음 6:62에 대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인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야훼의 "말씀"(the Word), 즉 아람어 멤라(Memra)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 안에 "육체적으

로" 구현된 야훼의 말씀, 즉 하나님의 창조적, 지시적 언어가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돌아간 것 [하나님의 창조적, 지시적 언어의 목적이 성취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441-442). 그리스도의 "승천"(ascension)을 특정일에 일어난 특정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은유적 내러티브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마커스 J. 보그는『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김태연 역)에서 승천 이야기를 첫째, 부활 이전의 예수는 더 이상 없으며 이제 그는 하느님과 함께 있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하느님처럼 예수도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의미, 둘째, 따라서 그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 셋째, "하나님의 오른편"이 상징하는 가장 명예로운 자 혹은 왕과 같은 권한을 지닌 자가 되었다는 것, 넷째, 예수가 주님으로서 "임마누엘"(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261-263).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하늘에서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좌에 실제로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요한과 다니엘을 둘 다 오해하는 것이다. 예수는 구약성경에서 그에 관해 예언되었던 것들이 무엇이든 일어나기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다.

아브라함 이전의 영광

예수는 자신의 역사가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누가 24:27*).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윤곽이 그곳에 명백하게 그려져 있었다.

*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누가 24:27).

그 신성한 기록은 그 어떤 것들도 메시아의 출현이 구약성경의 유일신론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고 시사하지 않는다. 많은 증거가 사도들이 결코 한 순간도 하나님의 절대적 유일성을 의문시하지 않았으며, 예수의 출현이 유일신론에 대한 어떠한 이론적 문제도 야기하지 않았다는 명제를 지지할 것이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한 두 본문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17:3)이라는 예수 자신의 강령적 진술을 스스로 전복시킨다고 제시한다면, 혹은 영원 전부터 의식 있는 존재로 예수 자신이 존재했었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이라는 범주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면, 성서의 통일성은 파괴된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가졌었던 영광을 위한 예수의 기도는 (17:5*) 다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자신을 위해 미리 예비되었던 영광에 대한 욕망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예수가 제자들을 위해 예정해 두었던 영광 또한 "주어진" 것이었지만 (요한 17:22, 24*), 그들은 "아직" 그것을 받지 않았다.[9]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한 17:5).

*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한 17:22, 24).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탁월한 중요성을 가진 것들은 무엇이든, 예를 들면 모세, 율법, 회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등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유대적 사유방식의 전형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은 십자가 수난이 세상의 기초가 확립되기 이전에 "발

9 미래를 위해 약속된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존재했다고 말해질 수 있다는 것이 유대적 사유의 전형이다. 따라서 요한 17:5에서 예수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졌다." 그 영광은 그의 약속된 보상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에 보관된 보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보상이다 (마태 6:1, 요한 17:5 비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가졌던 영광"). "일부 유대 문서들에서 기다리는 메시아에게 선재가 추정되지만, 그것은 다만 성막, 율법, 예루살렘 도시, 율법수여자 모세 그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훌륭한 사물들과 사람들과 함께 공통된 방식이다" (오틀리 Ottley, 『성육 교리』 *Doctrine of Incarnation*, p.59).

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계시록 13:8 킹제임스역). 베드로는 기원 1세기 말에 글을 쓰면서 여전히 예수의 "선재"가 단지 하나님의 "예지" 속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베드로전서 1:20*). 사도행전의 앞부분 장들에 보이는 그의 설교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견해를 반영한다.

*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베드로전서 1: 20).

그러나 자주 언급되는 증명 본문인 요한복음 8:58*, 즉 예수가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했다는 진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요한 8:56-58).

예수는 결국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 (17:3, 5:44)이라고 말하고 그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요한 10:36)이라고 해 놓고, 다른 편으로는 자신이 또한 창조되지 않은[선재한] 존재라고 함으로써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그는 구약성경의 알아 볼 수 있는 범주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규정하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자신이 존재했다고 말함으로써 결국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제시했다는 것인가? (요한 10:36, 시편 82:6, 2:7). 결코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삼위일체적 문제가 요한복음의 이 본문

하나 때문에 제기된다는 것인가? 요한복음 8:58 본문을 같은 복음서 10:36*에 나오는 예수의 나중 진술과 함께 성경 다른 부분들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요한 10:36).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철저히 유대적 분위기로 보면, 예수가 랍비적 전통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가운데 널리 통용되고 있었던 용어들을 사용하여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럽다. 유대적 맥락에서는 누군가가 "선재"했다고 주장해도 그것이 그를 [영원전부터 존재한] 창조되지 않은 존재라고 입증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절대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함의한다. 예수는 분명히 창조의 중심적 이유이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구원의 계획이 증명된 것은 독특하게 창조된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탄생 때였다. 하나님의 자기표현[말씀]이 한 인간 속에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때 예수의 개성적 존재가 시작되었다 (요한 1:14*).[10]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10 케어드(G.B Caird)의 『신약성경에서의 그리스도 교리 발전』(*The Development of the Doctrine of Christ in the New Testament*), p.79 비교. "유대인들은 다만 의인화의 선재만 믿었다. 예를 들면 지혜는 신적 속성 혹은 신적 목적에 대한 의인화가 되었지만 결코 지혜가 사람은 아니었다. 네 번째 복음서나 히브리서도 영원한 말씀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으로 보도록 하는 견지에서 그것에 대해 말하지는 않는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1:14).

예수와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는 종종 동문서답 문답놀이 같은 것이었다는 점은 잘 확인된 사실이다. 요한복음 8:57에서 예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자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한 것이었다 (요한 8:56). 그 족장은 마지막 날에 부활될 때 일어나서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요한 11:24, 마태 8:11*).

*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하늘 나라]에 앉으려니와"(마태 8:11).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는 "세상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십자가 순교를 당했다" (계시록 13:8, 킹제임스역, 베드로전서 1:20*).

*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베드로전서 1:20).

물론 실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메시아와 그의 왕국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메시아와 왕국은 신앙의 눈을 통해 아브라함에 의해 "보여졌다"는 의미에서 "선재했다."[11]

요한 8:58에서의 "나는 이다"(I am)라는 표현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다. 그것은 자주 주장되고 있는 것과 같이 야훼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ego eimi o ohn*)라고 선언한 출애굽기 3:14*에 보이는 신의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14).

예수는 그런 호칭을 어느 곳에서도 주장한 적이 없다. 요한 8:58에서의 "에고 에이미"(*ego eimi*)에 대한 적절한 번역은 "내가 그이다," 즉 약속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다. (요한 4:26에서 "그대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그리스도]이다"라는 동일한 표현과 비교할 것).[12]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는 "예견되었다" (베드로전서 1:20 비교). 예수는 이렇게 요한 8:58에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확립된 자신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해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

11 벤트(H.H. Wendt, D.D.)는 요한 8:58에 대해 논평하면서 "예수의 지상에서의 생애는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고 예견되었다"고 쓰고 있다 (『예수의 가르침』*The Teaching of Jesus*, Vol. II, p.176).

12 에드윈 프리드(Edwin Freed), *JTS,* 33, 1982, p.163. "요한 8;24에서 '에고 에이미'(ego eimi)는 예수의 메시아신분에 대한 지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너희가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요한복음 1:1의 로고스

요한 1:1에서의 "말씀"⑬이 "예수 탄생 이전의" 제 2의 신성한 개성체 [위격]를 뜻한다고 이해하는 이유는 단지 습관의 힘 때문일 뿐이다.[13]

⑬ "로고스"를 "말씀"(Word)으로 옮기는 것 대신에 "살아있는 표현"(the Living Expression)으로 옮긴 영역본 *The Passsion Translation* (2018)이 있다. 키건 A. 챈들러 (Kegan A. Chandler)는 인간 메시아의 유산을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헬레니즘적 (Hellenistic), 영지주의적 (Gnostic) 영향으로부터 신앙을 보호하고자 했던 요한이 여기서 "말씀"이라고 쓴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계시적 언어를 뜻한다고 본다. 즉 그리스어에서의 "로고스"(logos)와 히브리어에서의 "다바르"(davar)는 동의어로서 둘 다 하나님의 표현된 아이디어를 지시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하나님』 *The God of Jesus* 474).

잠언 8:22, 30*과 누가 11:49*에서의 지혜에 대한 유사한 의인화에 보이는 "여성 인칭대명사"가 제2의 [위격] 개성적 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지혜]를 가지셨으며... 내

13 주 10을 볼 것.

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잠언 8:22. 30).

*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누가 11:49).

요한과 예수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시된 신격에 "제2의 신성한 개성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그렇듯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 (17:3), "단지 그 한 분만이 하나님"(5:44)이다. 로고스 ("말씀")라는 용어를 구약성경의 전망으로 읽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부여의 명령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시편 33:6-12*).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목적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힘이다 (이사야 55:11*). 만약 우리가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를 찾는다면 말씀을 창조적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과 동일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이다 (마태 13:19*, 갈라디아 6:6* 등등).

*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편 33:6-12).

*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이사야 55:11).

*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마태 13:19).

*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갈라디아서 6:6).

이러한 관념들의 복합체가 "로고스," 즉 "말씀"의 의의를 구성한다. "그것을 통해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것 없이는 아무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요한 1:3). 요한 1:14에서는 초자연적으로 잉태되는 순간에 자신의 신성한 기원이 시작되는 현실 속의 한 인간 속에서 "말씀"이 실현된다.[14] 이 순간부터 "때가 차게 되어" (갈라디아 4:4)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새로운 창조를 통해 표현하는데, 그것은 아담을 통한 최초의 창조에 대한 대응물이다. 예수의 잉태와 탄생은 역사상의 하나님의 목적의 전례가 없는 새로운 단계를 표식한다. 제2의 아담으로서 예수는 구원의 전체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를 마련한다. 그는 영원불멸성으로 가는 길을 개척한다.

---

14 요한 1:1-14를 논하는 제임스 던(James Dunn)의 『형성 중의 그리스도론』(*Christology in the Making*), p.243과 비교할 것. "우리의 분석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결론은 우리가 개성적인 로고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다만 14절이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 요점은 남성적 로고스를 '그'로 번역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의해 희미해진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대신 로고스를 '하나님의 발언'으로 번역했다면, 그 시작품이 반드시 1절에서 13절에서의 로고스가 개성적인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도록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한 인간 속에서 계시된다 (히브리서 1:1*).

*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히브리서 1:1-2).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가 다른 생명을 위해 그 이전의 한 생명을 포기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 창조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아담과의 평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게 될 것이다 (누가 3:38). 또한 그것은 "깨어질 수 없는" (요한 10:35)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순전한 유일신론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원 1세기에 한 새로운 아들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다 (히브리서 1:1). 영원히 존재하는 아들이라는 관념은 유일신론을 공격하고 예수의 현실적 인간성을 위협하면서 성서적 기획을 폭력적으로 혼란시킨다 (요한 1서 4:2,* 요한 2서 7*).

*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 1서 4:2).

*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요한 2서 7).

요한의 복음서에서의 예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그의 동료 사도들과 요한 자신을 조화롭게 만들 것이며 구약성경의 유일신론이 저해받지 않

고 유지되게 할 것이다. 교회사의 사실들이 신약성경 시대 직후에 이방 그리스 사상의 영향 하에 히브리 성경의 제한 없는 유일신론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메시아신분에 대한 예정된 체제가 미래의 메시아 왕국의 실재성과 함께 망각되었다. 그 결과 어떻게 [선재했던]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제2의 위격] 신성한 개성체가 완전한 한 인간 존재 속에서 단일한 개인으로 형성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메시아가 실제로 선재했다는 개념은 침투된 사상으로서 맞지 않는 그리스도론 퍼즐의 한 부분이다. 그런 개념과는 달리 하나의 분명한 예수 상이 히브리 계시와 사도들의 가르침의 용어들 속에서 출현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유일한 참된 하나님, 즉 그 분만이 홀로 하나님 (요한 17:3, 5:44)으로 남을 것이고,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됨은 진정으로 아들인 한 존재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의 통일성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외 성서의 모든 곳에서 그 용어를 이해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요한 10:36). 만약 기독교가 회복되고 통일되려면 기독교를 탄생시킨 히브리 세계에 대한 공감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리스인들의 오도된 성찰에 의한 훼손이 없는, 성서에서의 메시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예수의 “신성”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독특한 신성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신성은 온전히 그의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영(Spirit) 때문에, 또한 성령(Holy Spirit)의 영향을 받고 그가 독특하게 잉태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한 3:34*).

*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요한복음 3:34).

바울은 “신격의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골로새서 1:19, 2:9)는 것을 인정한다. 인간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요한 1:14). 우리는 하나님 그 자신이 “메시아 안에서 세상과 그 자신을 화목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5:19)는 것을 식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다. 즉 인간 속에서 구현된 신성한 성격의 완전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에게도 표명되었지만 (시편 8:5,* 창세기 1:26 비교), 그 정도가 훨씬 더 적은 것이었는데, 예수 안에서는 아버지의 의지가 완전히 분명하게 된다

(요한 1:18,* NASB).⑭

*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시편 8:5,6).

*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한 1:18).

⑭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의 번역도 NIV(New International Version)와 같이 개역개정 한글번역판과 유사하게 "독생하신 하나님"(the only begotten God)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제임스왕역(KJV)에서는 "독생하신 아들"(the only begotten Son)로 되어 있고, 많은 영역본에서도 "독생하신 아들"로 되어 있다. 그리스어 텍스트들 중에는 알렉산드리안 (Alexandrian) 텍스트들에서만 "하나님"(*theos*)으로 되어 있고, 다른 그리스어 텍스트들에서는 "아들"(*huios*)로 나온다. 요한복음 1:18을 *The Passion Translation*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광휘를 응시한 자는 아무도 없다. 다만 독특하게 사랑받은 아들, 아버지께서 아끼시고 자신의 심장에 가깝게 안고 계셨던 그 아들만이 응시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이신가에 대한 온전한 설명을 전개하셨다"는 식으로 옮긴다.

바울이 예수에 관해 말한 것들 중 그 무엇도 그를 인간 범주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 성전에 거주한 하나님의 현존이 그 성전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 바울이 메시아의 영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신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은[15] 거의 주목받지

15 그가 성경의 진리에 따라 적합하게 침례를 받았고, 온전히 교육받았으며, 활동적이었다고 가정하기. 독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늘날의 관념이 성

않는다 (에베소서 3:19).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주했듯이” (고린도후서 5:19), 그리스도도 “바울 안에” 거주했고 (갈라디아서 2:20*),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에베소서 1:23,* 3:19).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에베소서 1:23).

베드로는 “신성한 성격”을 지니는 충성스러운 자들에 대해 말한다 (베드로후서 1:4*). 그리스도인이 “신성한 성격”을 지닌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면 “개척자”로서 성공적으로 “행로를 완성한” 후에 구원의 과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예수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진실이다 (히브리서 2:10*).

*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베드로후서 1:4).

경적 정의와 상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마태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지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은 신약성경의 가장 불편한 경고를 제공한다.

*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히브리서 2:10).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도들은 언제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8:6)와 예수를 구별했는데, 이 사실을 보여주는 신약성경에서의 풍부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빌립보서 2:5-11*과 같은 성구를 읽으며 예수를 창조되지 않은 제 2의 존재로, 즉 하나님으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를 확신에 차서 받아들인다.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form]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form]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appearance]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heaven]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5-11).⑮

⑮ 빌립보서 2:5-11은 성육(Incarnation) 교리를 예증하는 핵심적인 구절로 거론된다. 즉 예수가 하나님으로 선재했다가 자신의 신위(deity)를 포기하고 인간성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역개정 한글판 성경에서 “본체”와 “형체”로 옮겨진 “형

상"(form)은 그리스어 "모르페"(morphe)로서 "본성"이나 "본질"이 아니라 "외양"을 뜻하는 것으로 쓰인다. 키건 A. 챈들러(Kegan A. Chandler)는 그리스어 "모르페"는 히브리어 "첼렘"(tselem)과 같은 뜻이며 둘 다 "이미지"(image)로 옮길 수 있다고 말하고 빌립보 2:6에서의 "모르페"는 내적 본성보다 외적 외양을 뜻하는 것으로 쓰인 예로 본다 (『예수의 하나님』*The God of Jesus* 334-35).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 [form]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마가 16:12)에서의 "모양"이 그리스어로 "모르페"라는 데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NIV에서는 삼위일체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existing in the form [morphe] of God)을 "본성상 하나님이신"(being in very nature God)으로 번역하고 있다. 챈들러는 이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논의를 하고 있다 (『예수의 하나님』 334).

『사도교회의 사전』(*Dictionary of the Apostolic Church*)에서 그리스도론(Christology)에 대해 쓴 저자가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결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그렇게 묘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선재한] 영원한 "이전 생명"(pre-life)에 대한 묘사를 찾는 것은 일종의 역설이다.[16]

예수에 대한 성서적 견해에 관한 최근의 널리 인정을 받은 연구인 제임스 던(James Dunn)의 『형성 중의 그리스도론』(*Christology in the Making*)은 후세대 신학자들, 즉 신약성경 완성 이후 여러 세기에 걸쳐 그리스 교회 "교부들"이 내리게 된 결론을 바울의 말로 해석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이해가 성서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위협적인 가능성을 쉽게 직면할 수 없기 때문

16 Vol. I. p.194.

에 성경경전에서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찾는 경향은 자연스럽다. (만약 우리가 성서를 가르치거나 전도하는 일에 종사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원한 [창조되지 않은] 존재를 몇 개의 짧은 구문들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결코 해 줄 수 없는 일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면 그가 다른 곳에서 그토록 분명하게 표현한 엄밀한 [단일신론적] 유일신론을 명백하게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8:6,* 에베소서 4:6,* 디모데전서 2:5*). 그것은 또한 그 자신이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바울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전적인 삼위일체론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린도전서 8:6).

*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에베소서 4:6).

*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디모데전서 2:5).

빌립보서 2장을 새롭게 다시 읽으면서 우리는 바울이 그 성구들을 통해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선재설

에 대한 자신의 유일한 언급이 될 말을 참으로 했던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그 소견의 맥락은 성도들에게 겸손을 종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준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었다가 인간이 되기로 결정한 존재의 사고방식을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가져야만 한다고 바울이 요구함으로써 겸손의 교훈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있음직한 일인지 자주 질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바울이 선재한 예수를 메시아 예수로 지칭하여 탄생 때 받은 그 이름과 직무가 영원전부터 복창된 것으로 만든다면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에 드러난 바울의 태도는 애호되는 주제인 "아담 그리스도론"(Adam Christology)⑯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⑯ 아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는 마빈 C. 페이트(Marvin C. Pate)의 고린도후서 4:7-5:21에 대한 해석서(1991)와 브랜던 D. 크로우(Brandon D. Crowe)의 『마지막 아담』(*The Last Adam: A Theology of the Obedient Life of Jesus in the Gospels*) (2017)을 참고할 수 있다. 페이트에 의하면 아담-그리스도 평행(Adam-Christ parallel)은 기원 2세기의 이레나이우스(Irenaeus)가 아담의 불순종을 극복하는 예수의 순종에 대해 자주 언급했던 것에서도 찾을 수 있고, 초기 교부들도 복음서들을 같은 방식으로 읽었으며 그리스도를 "새 아담,"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 등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존재가 아담이었는데 (창세기 1:26, 누가 3:38), 한편 제2의 아담 (고린도전서 15:45*)인 예수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 ("이미지"와 "형상"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이다).[17]

*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린도전서 15:45).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졌던 반면에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창세기 3:5),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 비록 예수는 신성한 현존(the divine Presence)을 반영하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신성한 직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어떤 "갈망할만한" 목표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에 대한 권력을 주겠다는 사탄의 제공을 거절하고 모든 특권들을 포기했으며 (마태 4:8-10*),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종으로,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는 죄인의 위치로까지 낮아지는 존재로 행동했다.

*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태 4:8-10).

이러한 겸손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시편 110편이 예언한 것과 같이 자신의 우편에 앉는 메시아 주의 지위로 고양시켰

17 특히 탈버트(C.H. Talbert)의 "빌립보서 2:6-11에서의 선재의 문제," *JBL* 86 (1967), pp.141-53을 볼 것. 또한 호와드(G. Howard), "빌립보서 2:6-11과 인간 그리스도," *CBQ* (1978), pp.368-87.

다. 바울은 예수가 일시적으로 잠시 포기했었던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는 부활 이후에 최초로 그의 고양된 직위를 얻게 된 것으로 그려진다. 비록 그는 생애 동안 메시아였지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음으로써 "주(Lord)와 메시아(Messiah)로 되었을 때" 그 지위가 공적으로 확정되었다 (사도행전 2:36,* 로마서 1:4*).

*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36).

*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로마서 1:4).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삶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주의 지속적인 자기부정의 묘사로 읽으면, 예수의 경력에 대한 바울의 논평들 가운데 다른 것들과의 긴밀한 평행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는 부유했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그는 가난하게 되었다" (고린도 후서 8:9). 아담은 타락했지만, 예수는 자발적으로 "몸을 낮추었다."

빌립보서 2장 본문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예수의 상태가 하늘에서의 그의 선재적 삶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 번역들이 이 견해를 강화하는 데에 많이 기여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라는 구문에서의 과거시제 동사는 신약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결코 "영원 속에서[영원 전부터] 존재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비록 어떤 번역본들은 그런 의미를 강제적으로 그 속에 담기는 하지만. 고린도전서 11:7*에서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

의 이미지와 영광"이므로" 절대로 머리를 덮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고린도전서 11:7).

여기서 [형상과 영광이니]라는 현재시제 동사는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는 과거시제 동사와 다르지 않다. 일반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미지[형상]를 지니고 있다면 신성한 본성의 모든 속성들을 다 지닌,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 대표자인 예수는 얼마나 많이 충만한 신성을 가질 것인가 (골로새서 2:9*).

* "그 안에는 신성[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골로새서 2:9).

빌립보서 2장에서의 바울의 의도는 인간이 된 영원한 신성한 존재라는 거창한 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겸손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와 같은 태도를 지니고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으로 지상으로 오기 위해 신격을 포기하고자 하는 영원한 신성한 존재로 우리자신들을 상상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2장을 선재에 관한 진술로 읽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23년에 전직 레기우스 신학 교수(Regius Professor of Divinity)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불화를 멈추고 서로에 대해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부탁한다. 고린도후서 8:9에서 그는 자신의 글을 읽는 자들이 자선을 베푸는 일을 흔쾌히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가 그 2가지 간단한 도덕적 교훈을 강화하기 위해 성육(incarnation)의 방식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대한 우연한 언급(그가 그렇게 했다면 유일한 예가 될 언급)을 했다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인가? 라고 묻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편안한 호소가 고린도후서 10:1에서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고한다'에 보이듯이 인간 삶에서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의 고무적인 예를 지적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평의 필자인 A.H. 맥닐(McNeil)은 다음과 같은 의역을 제시한다. "비록 예수는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신성했지만,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스스로 종의 성격을 취함으로써 자신을 (모든 자기주장 혹은 신성한 명예를) 비웠다."[18]

바울은 예수가 인간의 현장에서 여느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과 같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삶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 겸손의 지속적 과정이었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 정점이었다. 제2의 아담은 첫 번째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겼고 그 결과로 가장 높은 고양(exaltation)의 지위를 얻는다.

---

18 『성 바울의 빛으로 본 신약성경 가르침』(*New Testament Teaching in the Light of St Paul's*), pp.65,66.

새로운 창조의 머리

아담과 예수의 평행이 메시아에 관한 바울의 사고의 근본을 이룬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창조와 아담의 관계는 새로운 창조, 즉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동일하다.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인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대표적 인간, 새로운 아담인 예수 안에서 사회가 모두 다시 시작한다. 이 상응관계는 만약 예수가 결국 한 인간으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심각하게 훼손된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누가 3:38)로 창조된 것과 같이 예수의 잉태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 (누가 1:35)로 형성한다. 물론 아담은 땅에 속한 인간인 (고린도전서 15:47) 반면,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는 인간"인데, 바울에 따르면 그의 "탄생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충성스런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재림할 때"에 그렇다 (고린도전서 15:45).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재에 대한 전통적 관념들에 내포된 결함을 본다.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림, 즉 파루시아(Parousia)에 중심이 있다. 그 이후 후대의 사유에서 관심의 중심이 예수의 탄생으로 이전되었다. 그에 따라 기이하게도 전통적 도식은 역행하여 과거를 보지만, 반면에 성서는 주로 메시아가 영광 속에서 미래에 다시 오는 것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정한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를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

의 중심이 되는 머리로 묘사한다. 그의 의도는 골로새인들을 협박했던 경쟁적 타종교 조직의 주장들에 대항하여, 부활과 새로운 질서에서의 우위를 통해 예수가 획득한 최상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모든 권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1:16*) 형성되었다. 따라서 예수는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은 나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태 28:18).

*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인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로새서 1:13-18).

여기서 "모든 것들"은 바울에게는 "왕좌들, 지배, 통치자 혹은 권위들"로 구성된 생명력 있는 지적 창조물들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의해"가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그의 "왕국"이었다 (골로새서 1:13). 예수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 째로 나온 자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의 장남이다 (15, 18).[19] "장남"이라는 용어는 새롭게 창

19 골로새서 1:17의 경우 많은 번역자들은 NASB 역자들보다 덜 주의 깊은데, NASB는 예수가 모든 것들에 앞서서 선재했다는 함의를 주변으로 퇴출시킨다. 예수가 문자적으로 시간상 최초로 창조되었고 혹은 영원히 실존했던 것이 아니라 창조된 세계에

조된 질서의 원천일 뿐만이 아니라 그를 그 선도적 구성원으로 지칭하는 것인데, 그 지위는 그가 부활을 통해 최초로 불멸성을 받았기 때문에 획득한 것이다. 요한은 계시록 3:14에서 유사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예수 그 자신이 창조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의미하는 것이 된다. 성서에서 "장남"이 최상의 직위를 지닌 자를 지칭한다는 것은 시편 89:27에서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장남," 즉 메시아가 "땅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서 다윗처럼 백성들 중에서 선택되어 고양된 존재이다 (시편 89:19*). 마찬가지로 바울은 히브리 경전들에 의해 이미 잘 확립된 메시아 개념을 발전시켰다.

* "그 때에 주께서 환상 주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시편 89:19).

바울의 진술들 중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제2의 영원한 신성한 존재"를 찾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다. 예수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된 제2의 아담

서 그가 최상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그가 모든 것들 "앞에" 있다고 보는 바울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요한 1:15, 30의 번역에서 선재설에 대한 유사한 열정이 그 절을 "내 뒤에 오실 그는 나를 능가하는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앞의 위치를 차지하셨다"고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지 않는 번역들 속에 드러난다 (레이먼드 브라운Raymond Brown이 『앵커 바이블』*Anchor Bible* 시리즈에서 한 논평들 참조. 그리고 웨스트콧Westcott에 의한 것. 또한 『제네바 바이블』*Geneva Bible* (1602)의 번역인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하다"). NIV는 예수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가신다" 혹은 "되돌아가신다"로 묘사할 때는 오도하게 된다. 그는 "가시고" 혹은 "승천하신다" (요한 13:3, 16:28, 20:17을 볼 것).

으로서 이제 창조된 인간의 본래의 임무였던,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창세기 1:26,* 시편 8). 예수는 이제 새로운 인류의 질서의 머리로서 인간 인종을 대표한다. 그는 하늘의 성전에서 최상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재한다 (히브리서 8:1*).

*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26).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히브리서 8:1).

부활한 주에게 그와 같은 높은 호칭을 부여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6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이 계시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한 데에서 표현한 자신의 분명한 [단일신론적] 유일신론을 침해했다고 생각할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골로새서 1장에서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바울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결별하여, 다른 곳들에서는 그가 그토록 주의 깊고 분명하게 진술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전체 신학 배경 속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반(反)삼위일체론적] 유일신론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전혀 없다.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히브리서 필자는 예수의 인간성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다. 예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면에서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 (히브리서 4:15*). 하나님은 본래 아들을 “통해” (“의해”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그 아들의 운명을 고려하면서 세대들을 만드셨다 (히브리서 1:2*).

*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브리서 4:15).

*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브리서 1:2).

하나님은 과거 다른 시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대변인들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신 후, 마침내 이제는 참으로 아들이신 존재를 통해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2). 히브리서 필자는 예수가 창세기 창조작업에서의 적극적 수행자였다고, (예수가 모르는 사실을) (마가 10:6),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창조작업을 마친 후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하나님이었다 (히브리서 4:4, 10*).[20] 또한 마리아의 태내에서 자신의 아들을 잉태시킨 분도 하나님이다 (누가 1:35*):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

어오게 하실 때에"(히브리서 1:6).[21]

*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누가 1:35).

* "제 칠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

20 신약성경은 창세기 1:1, 사도행전 7:50, 14:15, 17:24, 계시록 4:11, 10:6, 14:7, 마가 10:6, 13:19에서 설명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 대단히 분명하다. 히브리서 1:1-2는 히브리 성경에서의 하나님을 예수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적 신을 뜻할 그 어떤 가능성도 제외한다. 또한 머레이 해리스(Murray Harris)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Jesus as God* (Baker, 1992), fn.p.47: "히브리서 필자에게는 (모든 신약성경 저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외의 다른 분이 아니다. (사도행전 2:30, 33, 3:13, 18, 25, 26 비교). 신약성경에서 테오스(theos)가 규칙적으로 아버지만 지칭하고 결코 삼위일체를 지칭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엘로힘 혹은 야훼가 구약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p.273(fn)에서 해리스는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지칭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21 아들의 기원은 따라서 기적에 의해 하나님이 자신의 독특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기적적 사건으로 명백하게 설정된다 (이사야서 9:6, 마태 1;18, 20, 요한1서 5:18) [(focusonthekingdom.org)에 공개된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주가 있다.] 토마스 헤윗(Thomas Hewitt)의 『히브리서에 대한 틴데일 논평』*Tyndale Commentary on Hebrews* (1960), p.56 비교. "그러므로 번역은 '그가 다시 그의 장남을 세상에 보낼 때'이다."

없으시니라"(히브리서 4:4, 10, 15).

메시아가 지상에 다시 올 때, 그에 관한 많은 중요한 진술들이 역사가 될 것이다. 첫째, 메시아의 왕좌가 확립될 것이다 (히브리서 1:8). (마태 25: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비교).[22] 아버지의 신성한 위엄을 재현하는 메시아적 호칭인 "신"은 예수에게 적용될 것인데, 그것은 한 때는 이스라엘의 최상의 사사인 메시아를 예시했던 여러 사사들에게도 적용되었었다 (시편 82:6). 시편 102:25*에 보이는 또 다른 예언도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서 실현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초가 이사야 51:16*과 65:17에서 예견한 것과 같이 수립될 것이다.

"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시편 102:25).

*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이사야 51:16).

히브리서 1:10*은 주 메시아가 창세기 창조에서 관여했던 것을 뜻한다고 쉽게 잘못 이해될 수 있다.

22 또한 마태 19:28, 누가 22:28-30, 계시록 2:26, 3:21, 5:10 참조. 다른 많은 본문들과 함께 그것들은 예수가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설립될 메시아 왕국을 예견한다.

*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히브리서 1:10).

그러나 이런 오해는 철저히 메시아적인 시편 102편을 70인역(Septuagint)으로부터 히브리서 필자가 인용한 것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된다. 더구나 그 필자는 특히 아들에 관한 일련의 진리들은 아들이 땅으로 “다시 오게 될” 때를 지칭한다고 진술한다 (히브리서 1:6*).

*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히브리서 1:6).

그리고 히브리서 2:5*에서 그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그 땅은 그가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거주할 미래의 땅”이라고 말한다.

*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the world]⑰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히브리서 2:5).

⑰ 이 구절에서의 “세상”은 “시간의 공간, 시대”(a space of time, an age)라는 설명이 있으며, 그리스어로는 “오이코우메넨”(oikoumenēn)으로서 미래의 지상적 세계를 지칭하는지 “하늘”의 세계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구절 전후의 맥락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지상의 세계를 뜻한다. 데이빗 알렌(David L. Allen)의 『뉴 어메리컨 해설』(*The New American Commentary*)에 의하면, 히브리서 2:5에서의 “세상”은 메시아적 시대를 위한 실제적이고 지상적인 의미에서의 세계로서 미래의 “사람들이 사는 땅[지상]”(the inhabited earth)을 지칭한다 (203).

그 필자가 자신의 논평을 제공할 수 있게 허용되어야만 한다. 그의 관심사는 메시아적 왕국이지 창세기에서의 창조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응당 가져야 할 신약성경의 메시아적 비전을 공유하지 않을 때는, 미래를 향하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성서 전체의 철저한 메시아적 전망에 따라 우리 자신을 조율해야만 한다.[23]

23 어떻게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102편을 히브리서 1:10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브루스(F.F. Bruce)의 『히브리서』(*Epistle to the Hebrews*), pp.21-23 참조. 또한 이 책 부록 3 "예수는 삼위일체론자가 아니다"도 참조.

신약성경의 히브리 배경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약성경 저자들의 일치된 이해의 원천이 되는 히브리 성경의 주요 본문들을 열거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세계를 요약하고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그 어느 곳에서도 메시아가 창조되지 않은 [영원 전부터 선재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찾을 수는 없는데, 그러한 혁신적 개념의 원천을 찾으려면 성서 외부를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의 이미지와 영광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원래 목적은 이 땅에 대한 지배를 행사하는 것이었다 (창세기 1:26, 시편 8). 그러한 이상은 시편 기자가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도록" (시편 8:5, 6)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왕관을 씌운 그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신성한 계획이 전개됨에 따라 사탄에 의해 야기된 재난을(창세기 3:15) 역전시킬 약속된 "여자의 씨"가 다윗왕의 후손일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된다 (사무엘하 7:13-16).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며 (사무엘하 7:14)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권을 수여할 메시아로, 하나님에 의해 임명될 것이다 (시편 2). 그러나 왕권을 수행하기 전에 메시아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며 "주"라는 호칭을 받게 될 것이다 (시편 110:1).[24] 사람의 아들

로서, 대표적 인간으로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적 제국을 관리할 권위를 받기 이전에 그의 자리를 하늘에서 지키고 있을 것이다 (다니엘 2:44,* 7:14, 사도행전 2:20, 21).

*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다니엘 2:44).

처음 지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었으므로 (이사야 53, 시편 22), 그는 하나님의 장남, 땅의 왕들의 지배자로서 재림할 것인데 (시편 89:27), 그것은 또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된 다윗에 의해 예시되었다(시편 89:19, 20).

제2의 모세로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었는데 (신명기 18:18), 처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으로 탄생함으로써 그의 신성한 아들 신분을 획득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다 (로마서 1:4).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는 이제 하늘에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히브리서 8:1) 모든 사물들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데 (사도행전 3:21), 그때 그는 왕들 중의 왕, 시편 45편에 나오는 신성한 인물로 이 땅에 다시 오기로 정해져 있다 (히브리서 1:6-8). 그 때, 왕국의 새로운 시대에 그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마태 19:28, 누가 22:28-30,

24 히브리어 단어 "주"(*adoni*, my lord)는 그 단어의 195번 등장에서 결코 신격의 경칭이 아니다. 반대로 주 하나님은 449번 등장하는 "*Adonai*"이다. 이 중요한 본문은 성서의 어떤 저자도 메시아가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부록 참조.

고린도전서 6:2, 디모데후서 2:12, 요한계시록 2:26, 3:21,* 20:4*).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요한계시록 3:21).

*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요한계시록 20:4).

아담이 지상에서의 최초 인간 창조의 선두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는 인류의 새로운 질서의 창조된 우두머리이며, 그 안에서 인간 인종의 이상들이 성취될 것이다 (히브리서 2:7).

이와 같은 메시아적 체제 안에서 예수의 인격과 활동을 사도들이 이해했던 개념들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진보된" 그리스도론을 제시할 때도 그들의 목적은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목적의 중심 (요한 1:14)인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요한 20:31*).

*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한 20:31).

비록 예수는 명백하게 자신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상호 협력하지만, 아버지는 성서적 유일신론의 "유일한 참된 하나님"으로 남는다

(요한 17:3). 따라서 예수는 유일한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현존을 대표한다. 인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Immanuel),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현존한다 (요한 14:9*).[25]

*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 14:9).

25 요한 20:28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묘사한다. 그 두 경칭들은 구약성경에서 메시아에 부여된다 (시편 45:6, 11, 110:1). 요한의 전체적 목적은 예수를 메시아로 제시하는 것이다 (요한 20:31). 그러나 도마의 그 말 속에는 특별한 의의가 담겨있다. 요한 14:7에서 예수는 도마에게 "만약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그를 알고 그를 본다." 결국, 예수의 부활 후에 도마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그에게 위임하셨던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요한 20:28는 도마와 빌립과 예수의 이전 대화의 속편이다 (요한 14: 4-11).

하나님의 아들에서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는 영감 받은 기록들에 계시된 다양한 갈래의 자료들을 취합하여 성서의 예수에 대해 탐구했다. 그 결과 나타난 그림은 전통적인 기독교에 의해 제시된 그림과 다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설명한 그리스도의 인격은 성서적 신앙(faith)의 첫 번째 원리, 즉 홀로 참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한 분에 대한 믿음(belief)⑱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 17:3*, 5:44).

⑱ "믿음"(belief)이라는 말은 근대 이전에는 "소중히 여긴다"는 뜻으로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오늘날의 뜻과 달랐으며, "종교"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는 "신앙"(faith)도 근대 이전에는 라틴어 "피델리타스"(fidelitas)가 뜻하는, "예수를 통해 알게 된 하느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충실의 뜻이 더 많았다고 한다. (마커스 J. 보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32).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 17:3).

어떻게 성서적 메시아가 탈성서적 [성서 이후의] 신학자들에 의해 "아

들 하나님" 혹은 하나님인 아들 (God the Son)이 되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성서의 본질적 메시아주의(Messianism)⑲가 점차로 억압되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해졌다.

⑲ 메시아주의는 특정 집단 [국가 혹은 민족]의 구원자, 해방자가 될 존재의 도래에 대한 믿음이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Abrahamic religions), 특히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는 다윗왕 가문에서 나올 미래의 유대인 왕이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왕이나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 위로 성스러운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자라는 뜻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미륵(Maitreya)에 대한 신앙이 메시아주의의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료애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영광을 묘사하는 순전히 메시아적인 호칭인데 기원 2세기 때부터 그것이 잘못 이해되었고 하나님/인간(God/Man)의 신성한 성격을 뜻하는 것으로 재적용되었다.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명칭도 마찬가지로 대표적 인간으로서의 메시아라는 칭호인데, 예수의 인간적 성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들이 그것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 의의가 탈색되어 버리고, 성서적 의미가 상실되었다. 구약성경의 증거가 공관 복음서들,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의 요한의 증거와 마찬가지로 거의 다 부인되었고, 요한복음과 바울의 서간문 두, 세 편에서의 일련의 본문들이 재해석되어 예수가 영원한 삼위일체의 제2의 구성원으로서 본질상 동일하고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관

념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예수는 성서적 기록들에서의 예수가 전혀 아니다. 그는 또 다른 예수이다 (고린도후서 11:4).

모호해진 그 사람과 메시지

메시아에 관한 성서적 의미가 상실된 것과 함께 예수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며 복음의 핵심인 메시아적 왕국[나라]의 의미도 동시에 상실되었다 (누가 4:43,* 사도행전 8:12,* 28:23, 31*).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누가 4:43).

*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사도행전 8:12).

*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사도행전 28:23, 31).

회복된 땅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확립하려는 희망, 즉 예수가 와서 확증했던 (로마서 15:8*)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들의 주제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의 희망으로 대체되었고, 상당한 분량의 선전문들이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⑳를 세우는 것과 같은 "지상적이고," 정치적이며, "비영적인" (unspiritual) 것을 결코 믿지 않았다고 [성서에 대해 철저히] 교육받지 못한 대중에게 확신시켰다 (지금도 계속 확신시키고 있다).

*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로마서 15:18).

교회의 전망을 (기원 2세기 초 무렵부터 시작하여) 점차 장악하게 되었던 근본적 변화들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오해만이 아니라 예수의 중심적 메시지,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누가 4:43, 사도행전 8:12, 28:23, 31)이 상실되었다.

⑳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 혹은 하늘 나라(Kingdom of Heaven)에서의 "나라" [그리스어로는 바실레이아(Basileia)/히브리어로는 말쿠트(Malkuth)]는 통치 개념이라고 보는 N.T.라이트 (N.T.Wright)는 " '하나님 나라'는 장소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뜻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권 (kingship)이나 하나님의 왕적 통치(kingly rule)로 옮기는 것이 낫다"(『새 하늘과 새 땅』(*New Heavens, New Earth* 윤상필 역 2015, 19-20)라고 말한다. 또한 라이트는 "천국[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은 '현 세계와 동떨어진 장소'가 아니라, 비밀스럽지만 현실에 실재하는 영역으로 보는 게 올바른 기독교적 이해라고 생각한다"(같은 책, 41)고 말한다. 버저드는 이와 달리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에 건설될 구체적인 신정정치적 나라로 본다.

그 결과로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 왜냐 하면 교회들

은 한편으로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구약성경 예언들을 성취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메시아가 땅을 통치하기 위해 온다는 구약성경의 약속을 예수가 거부하게 된 것으로 어떻게든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제시되는 이론은 예수가 구약성경을 사랑의 윤리적 이상을 가르치는 정도까지만 받아들이고 땅에 확립될 하나님 나라에서 사회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파국적인 역사상의 신성한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전망은 부인했다는 것이다.[26] 요컨대 예수는 메시아로 선언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동시대인들이 갈망했던 신정정치(theocracy)의 회복에 대한 모든 희망은 제거했다는 가설이 생긴 것이다.

이스라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참으로 땅을 통치할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예수는 이른바 그러한 "조야한" 기대와는 의견을 달리 했다는 식으로 오랫동안 주장되었다.[27] 유대인들이 왜 이 땅에 구체적인 메시아적 제국이 설립될 것을 기대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조용히 회피된다. 만약 그러한 질문이 제기되면 분명히 구약성경 경전들이 그것 [지상에서의 메시아적 제국의 설립]을 매우 세부적으로 예언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들이 신성한 드라마의 첫 번째 막, 즉 고통 받고 죽어가는 메시아와 관련된 부분만을 허용하고, 두 번째 막, 즉 승리에 찬 왕, 이 땅에 효

---

26 예수는 예언된 신정정치가 언젠가는 메시아인 그에 의해 확립될 것이라는 점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신학이 미래 메시아 왕국의 진리를 상실함에 따라 또한 예수와 충성스러운 교회의 미래 공동통치의 전망도 상실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었다.

27 구약성경, 시편 2편 등과 같은 솔로몬의 시편들에서도 발견되었다,

율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사로서 메시아가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는 점은 무시함으로써 성서를 공명정대하게 다루고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아버지의 우편에 자리하고 있는 그의 현재 기간은 신약성경이 그 점을 이해하듯이 다만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하나의 심각한 근본적인 오해가 역사상의 예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들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메시아 신분의 주요한 요소인 메시아의 정치적, 신정정치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 성경의 대부분의 직설적인 진술들과 대조적으로, 미래의 메시아적 왕국에서 교회가 예수 자신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교회에 대한 그의 약속들은 (마태 19:28,* 누가 22:28-30*) 미래가 아니라 "현재" 시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들을 지금까지 기울이고 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태 19:28).

*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누가 22:28-30).

계속 간과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예수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때는 현시

대의 끝에 "예수가 영광 속에서 올 때"이며 (마태 25:31), "그가 왕으로서 그의 직무를 행할 새로운 시대"에 있게 될 일이라는 점이다 (마태 19:28). 티끌만한 의혹도 없도록 신성한 존재들의 합창은 하나님이 "땅을 지배할"(요한계시록 5:10*) 운명을 지닌 왕들과 제사장들의 계보로 구성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나온, 교회에 대해 노래한다.

*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5:10).

시편 2편의 순전한 메시아주의는 요한계시록 2:26과 3:21*에서와 같이 강력한데, 이 본문들은 교회에 대한 예수 자신의 말이다 (요한계시록 1:1, 22:16). 성경에서의 예수는 구약성경의 예언과 묵시문학(apocalyptic literature)㉑에서의 바로 그 예수 외의 다른 사람이 아니다.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21).

㉑ 유대-기독교 전통의 산물로서 세상 끝에 밝혀지게 될 파국적 사건들에 대해 초자연적으로 영감 받은 것으로 주장되는 예언들을 다루는 문학장르이다. 비교(秘敎)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현 시대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표출하며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으로 묘사한다. 유대인들의 초기 묵시문학의 예는 구약성경의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의 내용이다.

교회 신자들이 "신앙으로" 기꺼이 받아들인 현재의 이런 저런 신조들

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에 대한 개인적인 조사에 참여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수 의견들이 자동적으로 올바른 의견들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정직해야 하는데, 그런 전통적 의견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와 사도들이 가르쳤던 원래의 신앙을 파묻어 버릴 정도로 멀리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캐넌 H.L. 구지(Canon H.L. Goudge)가 "히브리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정신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발생한 재난에 대해 글을 쓰면서 관찰한 내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28] 캐넌 구지에 의하면 그 "교리와 실천에서의 재난"으로부터 "교회는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회복은 요한이 "예수의 메시아신분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요한 1서 2:22)라고 엄중하게 경고한 것을 충분히 주목할 때에만 시작될 수 있다.[29] 예수는 "메시아"라는 그 고도로 화려한 용어가 성서적 맥락에서 뜻하는 바의 모든 것을 그대로 지닌 채 메시아로 선포되어야만 한다.

---

28 유대교와 기독교에 관한 에세이들 선집, 『유대인들의 소명』*The Calling of the Jews.*

29 완드 (J.W.C. Wand, D.D.)에 의해 의역된 『신약성경 서신문들』*New Testament Letters*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들

"그리스도를 전도하기"에 관한 기사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 사전』 (*Dictionary of Christ and the Apostles,* Vol. II, p.394), 제임스 데니 (James Denny)는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모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고, 고양되었고, 주권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고양된 왕자와 구원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고 더 열렬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해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훌륭한 진술에 이어서 "사도들의 전도의 토대가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설교㉒외에는 없다"는 또 다른 가치 있는 관찰이 덧붙여진다.

㉒ 현대의 기독교 설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설교대(pulpit)에서 행하는데, 목회자(pastor)에 의해 청중석(pew)에 앉아있는 수동적인 청중에게 하는 일종의 독백 혹은 잘 정비된 연설문 형식이다. 반면에 구약시대와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예언자들이나 사제들이 미리 작성된 대본에 따르지 않고 즉흥적으로 현안과 중대한 사안에 대해 토론의 방식으로 말했다. 정기적인 연설이 아니고 간헐적이며 유동적이고 청

중에 의한 중간개입이나 적극적 참여가 있었다. 성직자-일반신도 분리(the clergy-laity split)가 없었으며 성직자제도(sacerdotalism)가 없었다. 신약성경에서의 사제(minister)는 하인 (servant)을 뜻하는 디아코노스(diakonos)이다. 만인사제주의(universal priesthood of believers)를 토대로 하는 평신도들의 예배모임에서도 일방적인 설교보다는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 (euangelion), 지식전달과 교육의 추구를 뜻하는 "디다케" (didache), 그리고 선포를 뜻하는 "케리그마" (kerygma)를 동시에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 이후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반적인 도덕적 권고를 뜻하는 "파래네시스" (paraenesis)를 대화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와 사도들이 설교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가 참된 종교를 위해 절대적인 중요성을 재현했던 방식들 중의 하나는 이것이다. 즉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간주했다. 메시아 역할은 단지 유일한 한 사람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었고, 바로 예수 그 자신이 당사자였으며, 다른 누구도 아닌 그가 그리스도였다." 이 모든 말은 탁월하지만 뒤따르는 생각은 반대되는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신분에 대한 불편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다른 시대에도 어떤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용어를 관대하게 넓은 뜻으로 쓸 때만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제임스 데니는 자신이 예수의 성서적 메시아신분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를 메시아 직무로부터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아이덴티티도 모호하게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계속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처음 믿게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지금은 없는 형태와 색채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메

시아라고 믿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점을 함축할 수밖에 없다. 데니는 우리가 이제 메시아신분에 대한 성서적 정의를 무시하고 그 메시아신분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관념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바로 이 경향이 사도들의 사망 직후 교회가 당면했던 재난을 야기했다. 교회는 메시아에 대한 그 자체의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서에서의 예수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상실했다. 데니는 "메시아"라는 용어가 "한때 그것과 결합된 기대들이 지녔던 생명력이 우리에게는 이제 상실되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면 그렇게 그 의미를 상실한 이유가 무엇인가? 데니는 "특히, 메시아라는 용어의 종말론적[30] 연상들이 우리에게는 초창기 신자들의 경우와 달리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이 연상들이 '그리스도'와 동의어로 사용된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중심으로 결집된다.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예수가 재림하는 것보다 원시 기독교에서 더 특징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것이 초기 교회가 희망이라는 말로 뜻했던 것의 바로 그 본질이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그들의 전망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다르다고 보는 것은 무슨 권위에 근거한 것인가? 분명히 성서에 나오는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특성들 중의 하나를 배제하면서 여전히 동일한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 수는 없다.[31] 초기 교회의 특징적

30 즉 시대의 종말에 발생할 사건들과 관련된다.

인 희망으로부터 미묘하게 벗어난 것이야 말로 바로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과 그 이름으로 사도들이 이해했던 것의 치명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신약성경 개념의 본질적 특성을 포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데니가 "암묵적으로 그리스도를 초기에 그에 관해 설교했던 사람들처럼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상정하는" 경향이 학자들 사이에 있다고 미심쩍게 보는 것은 맞다. 그는 그런 비판은 예수의 "개성을 '정확히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은 것으로, 그의 의식을 '정확히 우리 자신 의식의 가능성'으로 만드는 것을 업무로 삼는다" (강조를 위한 인용부호는 필자)고 이어서 말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이지만, 또한 데니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사도들의 전망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도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즉 그의 사역 속에서 그 권능이 미리 현현된 하나님의 미래 왕국[나라]의 통치자로 보는 그들의 중심적 이해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사도적 기독교[29]의 본질적인 특징"이었던 희망을 우리가 포기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슨 논리로 가능한 것인가?

---

31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에 관한 기독교 교리들이 "사탄의 존재가 없이는 전혀 유지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이클 그린 Michael Green, 『나는 사탄의 추락을 믿는다』(*I Believe in the Downfall of Satan*), Eerdman's, 1981, p.20.

㉓ 사도적 기독교(Apostolic Christianity)는 사도 교회와 연관된 개념으로서 기원 27년에서 29년 무렵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때부터 요한을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모두 사망한 기원 100년 정도까지의 사도 시대 (Apostolic Age)라고 부르는 시기의 초기 기독교를 뜻한다. 예수의 종말론적(eschatological) 사역으로부터 발전되었는데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때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한다. 이교주의(paganism)와 배교(apostasy)가 교회와 예배에 침투해 들어오기 전의 "예수와 사도들의 기독교"를 뜻한다.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사도행전 20: 29-30)에서 읽을 수 있듯이, 사도적 기독교 시대에도 이미 이교주의와 배교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교회사에 대해서는 필립 샤프(Philip Schaff)의 『교회사 전집 1: 사도적 기독교』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Apostolic Chrisitinity A.D.1-100*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자기모순 속에 교회가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한 충성을 유지할 수 없는 큰 실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망과 메시아신분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를 더 선호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관념에 예수의 이름을 부착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느꼈다. 우리는 이방인적 마음의 이미지를 따라 "다른 예수"를 창조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론의 표준적인 저작물들을 정독하면 독자가 예수에 대한 진리를 향한 개인적 추구를 시도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입장권들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논문에서 한때 옥스퍼드 신학 교수였던 윌리엄 샌데이(William Sanday)는 예수가 "선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념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어떤 본문들이 4복음서들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그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들에 보이는 예수에 관한 모든 진술들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지칭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탄생 이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재했었다는 단 하나의 언급도 없다. 우리가 요한의 복음서를 조사하면, "여기 저기 살펴보아도 [선재한,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애매모호하지 않은 표현들을 찾기는 어렵고, '아마 하나도 없다'" (『해스팅스 성서 사전』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IV., p.576. 강조를 위한 인용부호는 필자).

그렇다면 이것은 4복음서들을 통틀어서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언급하는 단 하나의 본문도 없다고 보는 한 주도적인 전문가의 진술이다. 그렇지만 교회들은 여전히 예수의 영원한[창조되지 않은, 선재한] 아들신분을 신앙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샌데이 교수는 마태, 마가, 누가가 왜 예수의 선재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는지 이렇게 추정한다. "아마도 그 사도들은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성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점에 관한 우리 주의 가르침의 일부도 재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같은 책 p.577). 서간문들을 고려할 때 샌데이는 히브리서 1:1-3에서 선재한 아들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결코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단지 추측할 뿐이다. 골로새서 1:15*에 대해서는 그는 " '장남'이라는 단어의 주도적인 관념은 법률적 권리들에 대한 관념이고 그보다 늦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보다 그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시간 상으로도] 또한 더 우선적이라는 관념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인 '듯하다' "고

부연한다.

*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서 1:15).

그는 한 독일 신학자가 “구약성경과 랍비주의(Rabbinism) [유대교의 율법학자 혹은 현인들의 사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 (즉 그가 하나님이라는 교의)로 인도하는 길을 찾을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소견을 마무리한다. 베른레(Wernle) 교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경칭은 엄밀하게 유대적이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나님 아들(혹은 아들 하나님)로 더 나아가면 그것은 이교주의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에 의해 도입된 해이한 관념을 통해 이방인적 토대 위에서 채택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같은 책 p. 577).

이런 유형의 진술들은 “선재한 아들신분”이라는 전체 사상체계가 얼마나 빈약한 토대 위에서 구축된 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준다. 성서 이후의 시대로부터 유래되는 예수에 관한 교리적인 진술들이 사도들의 권위가 아니라 그것들[진술들]의 권위에 의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고하게 인식해야 한다. 가장 현명한 행로는 우리의 입장을 성경 그 자체의 교리적 진술들에 기초하여 세우고 “영원한 생명은 이것에 있다. 즉 아버지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와 함께 확인하는 일이다 (요한 17:3).

예수, 인간과 중재자

사도들이 제시한 예수는 "아들 하나님"이 아니다. 이 경칭은 성서의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며 그 기원은 그의 기적적인 잉태로부터 유래한다. (누가 1:35*).

*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누가 1:35).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약성경에 계시된 한 분 위격으로 신약성경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수는, "그 자신이 인간" (디모데전서 2:5)이며 한분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 사이를 중재한다. 이 예수가 "온전히" (히브리서 7:25*)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예수는 기만적인 위조로서 회피되어야만 하는데, 너무 쉽게 "용납된다" (고린도후서 11:4*).

*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브리서 7:25).

*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고린도후서 11:4).

교회의 신앙 고백

예수가 설립한 교회는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중심적인 고백에 기초한다 (마태 16:16).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에 새로운 비성서적 의미가 부착되면 심각하게 왜곡된다. 그런 왜곡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신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져야 한다. 그런 왜곡의 효과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 긴박하게 필요한 일은 베드로의 확고부동의 반석 고백으로 복귀하는 것인데, 그는 예수의 면전에서 (마태 16:16),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행전 2:3*),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에,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세상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 예지되었지만 이 마지막 때에 명시된다고 선언했다 (베드로전서 1:20*). 예수의 메시아신분을 알리는 엄청난 사실은 단지 신성한 계시에 의해서만 이해된다 (마태 16:17*).

*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3).

*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1:20).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 16:16, 17).

기독교를 설립한 인물은 히브리 성서적 체제 내에서 제시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신앙의 예수이기도 한 실제적,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는 곳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체제이다. 그 체제 외부에서는 우리는 “다른 예수”를 고안하게 되는데, 왜냐 하면 그의 성서적 묘사 경칭들이 원래의 의미들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1:4 비교).

예수의 호칭들에 새로운 비성경적 의미가 투입되면, 그 호칭들이 그의 아이덴티티를 더 이상 진실 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런 일이 생기면 기독교적 신앙은 위태롭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임무는 예수를 예언자들의 비전의 메시아로 공언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고,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우리가 뜻해야 하는 것은 예수와 신약성경이 이 용어들로 의미한 것과 같아야만 한다. 교회는 다만 사도들과의 조화 속에서 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이야기해 줄 때에만 진정한 기독교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부록

메시아에 관해 예언된 가장 인상적인 사실들 중의 하나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시편 110:1은 신약성경에서 약 23번 인유된 지배적인 그리스도론의 증명 본문이다. 하나님과 메시아 사이의 관계는 메시아에게 부여된 경칭인 "아도니"(*adoni*)에 의해 정확히 지시된다 (시편 110:1). "주"라는 말의 이 형태는 구약성경에서 변함없이 (모두 195번 등장하는데) 비-신위(non-Deity)를 지칭한다. "아도니"는 "아도나이" (*adonai*)와 주의 깊게 구별되어야 한다. "아도나이"는 449번 등장하는 모든 성경 본문에서 신격(Godhead)을 의미한다. "아도나이"는 시편 110:1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중요한 구별은 그 성스러운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고 마태 22:41를 비롯한 다른 절들에서 예수 자신에 의해 확증된다. 그 본문은 메시아를 그가 아무리 고양되었다고 할지라도 인간 범주에 설정한다. 시편 110:1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 유일한 한 분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메시아의 지위를 묘사하는 핵심 본문이 된다 (사도행전 2:34-46 참조).

아도나이와 아도니 (시편 110:1):

신약성경의 가장 선호되는
구약성경 증명 본문

왜 메시아는 "아도니"(*adoni*) (나의 주)로 호칭되고 결코 "아도나이"(*adonai*) (주 하나님)로 호칭되지 않는가? "아도나이와 아도니는 인간과 신성한 신원의 구별을 표시하는 [랍비적 유대교의 권위적 텍스트]인 마조레틱 (Masoretic) 지시의 변이들이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지칭하지만 "아도니"는 탁월한 인간들을 지칭한다. "아도니"(*Adoni*)는 사람들, 나의 주, 나의 주인 [시편 110:1 참조].

"아도나이"(*Adonai*)는 하나님, 주님 (브라운Brwon, 드라이버Driver, 브릭스Briggs의 『구약성경의 히브리어와 영어 어휘사전』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p.10, 11의 "adon"[=lord] 항목).

" '아도니'(*ADONI*)('나의 주'my lord) 형태, 이 고귀한 왕권적 경칭 (사무엘전서 29:8)은 야훼에 대해 쓰는 신성한 경칭인 '아도나이'(*ADONAI*) ('나의 주님'my Lord)과 주의 깊게 구별되어야 한다." "'아도나이'(*ADONAI*), 특수한 복수형태 [신성한 호칭]은 '아도나이'(*adonai*) [단모음]=나의 주들 [창세기 19:2에서 나옴]" (『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Lord" 항목 p.157).

"구약성경에서는 신성한 존재에 적용되는 '아도나이'(*ADONAI)*에 대한 번역용어로 "주"(Lord)가 사용된다. 그 [히브리] 낱말은 접두사 [특별한 지시]를 추측상 구별을 위해 가진다. 때때로 그것이 신적 칭호인지 인간적 칭호인지가 불확실하다. 마조레

틱 본문은 때로는 이것을 주석으로 결정하는데 '거룩한'이나 단지 '탁월한'이라는 낱말의 구별을 위해서, 때로는 '아도니,' '아도나이'(단모음)와 '아도나이'(장모음)과 같은 모음의 변이에 의해 결정한다. (『해스팅스 성서 사전』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Lord," Vol.3., p,137).

"히브리어 '아도나이'(*Adonai*)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지시한다. 그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450번 입증된다. '아도니'(*Adoni*)는 인간들에게 지정된다 (창세기 44:7 민수기 32:25, 열왕기하 2:19 등등). 우리는 '아도나이'(adonai)라는 낱말이 '아돈' (adon) [즉 *adoni*]의 세속적 사용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특수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고 추정해야 한다. 왜 일반적인 아돈(adon) 대신에, 즉 [단모음으로 된] 아도니 (adoni) 혹은 아도나이 (adonai) [장모음으로 된] '아도나이 '(adonai)로 [하나님이 칭호되었는지] 그 이유는 야훼를 다른 신들로부터 그리고 인간 주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성서에서의 신들과 악마들 사전』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p.531).

" '아도나이' (*Adonai*) (주 하나님)에서의 a의 장모음화는 작은 외적 기호에 의해 그 단어를 성스러운 것으로 표식하려는 마조레트 (Masoretes)들의 관심으로부터 유래했을 것이다" (『구약성경의 신학사전』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T*, "Adon"항목, p.63. 『신약성경의 신학사전』*Theological Dictionary of NT*, III, 1060 ff. n. 109).

" '나의 주에게'라는 형태, 라도니 (*l'adoni*)는 신성한 지칭으로서는 구약성경에서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사실은 그 마조레틱 지시는 신적 지칭(*adonai*)과 인간적 지칭(*adoni*)을 구별한다." (비그램Wigram, 『영국인의 히브리어 찰디 구약성경 콩코던스』*The Englishman's Hebrew and Chaldee Concordance of the OT*, p.22) (Herbert Bateman, 「시편 110:1과 신약성경」*Bibliothecra Sacra*, Oct.-Dec..

1992, p.438).

에딘버러 대학의 래리 허타도 (Larry Hurtado) 교수는 그리스도론에 관한 현대 고전의 예찬받는 저자인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도나이' (*Adonai*)와 '아도니' (*adoni*)라는 용어들이 다르게 기능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자는 YHVH를 발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경건한 방식이고, 후자는 동일한 단어를 '신이 아닌 인물들'을 위해 사용한다" (2000년 6월 24일자 편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변모되었는가?

신약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로 제시한다. 그는 야훼,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행자와 대변자로 기능한다. 예수는 그의 교회를 자신이 "메시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마태 16:16)이라는 계시에 토대를 두고 설립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태내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창조 혹은 탄생되었다 (마태 1:20, 누가 1:35, 사도행전 13:13, 제임스왕역 제외, 요한 1서 5:18). 이것은 그를 독특하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혹은 "독특하게 탄생된 하나님의 아들" (요한 1:14, 18, 3:16, 18, 요한1서 4:9)로, 그리고 주 하나님 (the Lord God)이 아니라 주 메시아(the Lord Messiah)로 형성한다. 그는 탄생되었기 때문에, 즉 실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정의상 영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원한 아들"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무의미한 표현이다. "영원

한"이라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탄생되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뜻이다. 모든 아들들은 탄생된다. 따라서 "아들 하나님"(God the Son)이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오도된 경칭이다. 영원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다. 기원 2세기 이후 아마도 저스틴 마터(Justin Martyr)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교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역사 이전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그의 참된 아이덴티티를 왜곡하고 실추시켰다. 그들은 새로운 인간 창조의 수장, 제2의 아담으로서의 그의 지위로부터 그를 제거해 버렸다. 그들은 그의 실제 역사를 최소화했고 그의 우주적 유사 이전을 고안했다. 이것이 "인간 메시아 예수"로서의 그의 아이덴티티를 파괴했다. 후에 오리겐(Origen)은 "탄생된" 혹은 "생성된"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담았다. 그는 예수를 "영원히 생성된"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기원전 2년 경 아들의 실제적 "생성" 혹은 "탄생"에 대한 신약성경의 설명과 모순되는 의미 없는 개념이다.

그 터무니없는 "삼위일체의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니케아 이전 교회 교부들에게로 유래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회복주의자들"(restorationists)[24]이 옳게 추적했는데, 그 교부들은 중기 플라톤주의 모델을 이용하여 역사적 예수,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을 유사 이전의 세속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하기 시작했다.

㉔ "회복주의"(Restorationism)는 이교주의와 배교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신앙과 실천이 상실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초기 기독교와 신약성경의 모델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추진된 기독교 내부에서의 운동이다. 원시주의(Primitivism)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초기(혹은 원시) 기독교의 회복을 추구하는, 18세

기말에서 19세기말 사이에 주로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으로서 기존의 기독교 교파들을 거부하는 배타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회복주의자들은 대체로 삼위일체론과 지옥 형벌론 등을 부정한다.

그들은 성서에 묘사된 메시아 아들/왕을 대체해 버린 형이상학적 아들을 생산했는데, 사실 메시아 아들의 실존은 다윗과 맺은 계약에 의한 약속된 왕으로 예언되었을 때 여전히 미래의 일이었다 (사무엘하 7:14, "그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2는 구약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루프스(Loofs) 교수는 성서적 기독교의 초기 변조의 과정을 묘사한다.

변증자들 [기원 2세기 중엽 저스틴 마터와 같은 교회 교부들]이 기독교를 계시된 [철학적] 가르침으로 타락/변모(*Verkehrung*)시키는 토대를 놓았다. 특수하게는 그들의 그리스도론이 후대의 발전에 재난 수준으로 영향을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선재한 그리스도로 이전하는 것을 당연시함으로써 그들은 기원 4세기의 그리스도론적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론적 사유가 역사적 예수로부터 벗어나 선재설의 이슈로 이전되는 지점에서의 변화를 야기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의 역사적 생애로부터 관심을 돌렸으며, 그 역사적 생애를 뒷편으로 밀쳐내고 그 대신 성육 [즉 선재한 아들]을 부각, 촉진시켰다. 그들은 그리스도론을 우주론에 접목시켰고 그것을 구원론에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로고스 가르침은 관습적인 것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론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인식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진다.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고스, 열등한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최고의 하나님에 종속되는 한 분의 하나님이다 (열등주의 혹은 종속주의). ... 덧붙여서, 신성한 삼인

조 (*trias*)라는 형이상학적-다원주의적 개념들에 의해 경제적-삼위일체적 관념들이 억압된 것은 변증론자들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리드리히 루프스, 『도그마 역사 연구를 위한 지침』(*Leitfaden zum Studium des Dogmengeschichte, Manual for the Study of the History of Dogma*, 1890. 1부 2장 18섹션: "계시된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그리스 변증자들" Christianity as a Revealed Philosophy. The Greek Apologists, Niemeyer Verlag, 1951, p.97 번역 필자).

성서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아이덴티티를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우리시대의 주도적인 조직신학자의 날카로운 지적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중요한 경칭의 성서적 의미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 교부들과 신학자들 때문에 겪었던 천 년 간의 애매모호성으로부터 구출한다.

『신약성경 신학의 신국제 사전』(*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의 편집자인 콜린 브라운 (Colin Brown) 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다.

문제의 요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경칭은 그 자체가 개성적 존재로서 신위(Deity)의 표현 혹은 신격(Godhead) 내의 형이상학적 구별들의 표현이 아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시하는 피조물에 대한 지칭이다. 특히 그것은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부통치자를 지칭한다. 그것은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왕신분에 대한 지칭이다. 나의 견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대변자,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할 청지기신분과 권위를 부여받은 자

로 이해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용어와 수렴된다.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의 관계에 대한 네 번째 복음서에서의 진술들을 내적-삼위일체적 관계들의 표현으로 다루는 것은 근본적인 실수로 나에게는 여겨진다. 그러나 네 번째 복음서에 대한 이런 종류의 체계적 오독은 많은 사회적 삼위일체론 사유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요한의 복음서 서두 부분을 마치 그것이 '태초에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었다' (요한 1:1)라고 쓴 것처럼 읽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흔하지만 전매특허 받은 오독이다. 여기서 생긴 것은 말씀(Word, *logos*)을 아들로 대체한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이 태초로부터 존재했었던 신격의 한 구성원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삼위일체와 성육: 현대 정통교리를 향하여」 "Trinity and Incarnation: Towards a Contemporary Orthodoxy," *Ex Auditu*, 7, 1991, pp.87-89).

옮긴이의 말

나는 2018년 정년이 된 이후 한국연구재단 인문저술출판 지원 프로젝트인 『종교와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제목의 책 원고를 작성해 나가면서 기독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와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주제가 연구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도 성서(Bible) 혹은 성경(Holy Scriptures)이 오랫동안 나의 관심의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종교집단에도 속하지 않고 교회나 성당에도 나가지 않은 채로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을 몇 가지 영역본들과 비교해 가면서 읽던 중에 이 책의 저자인 앤서니 버저드(Anthony Buzzard)의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쉽(Restoration Fellowship)에 대해 알게 되었다. 버저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초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소개에 의하면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쉽은 메시아 예수의 기원 1세기 초 제자들의 믿음들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중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소책자 파일인 『예수는 누구인가?』 (*Who is Jesus?*)를 발견하고 공부삼아 우리말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된 버저드의

허락을 받아 이 번역서가 나오게 되었다.[32]

버저드의 설명에 의하면 자신의 웹사이트 제목은 사도행전 3:21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에 보이는 "회복"의 의미로 쓴 것이라고 한다. 버저드는 특히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Kingdom of Heaven)가 복음의 중심적 주제라고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누가복음 4:43)를 자주 인용한다. 한국어로 "나라"로 옮긴 것은 그리스어로는 "바실레이아"(basileia)로서 히브리어 "말쿠트"(malkeuth)와 같이 장소 개념이라기보다 통치(reign), 지배, 치세 등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나는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Student Study Bible*)이라는 책을 참고하는데, 이 누가복음 4:43에 대한 주석에도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영토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통치를 지칭한다고 되어 있다.

버저드는 하나님 나라/하늘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Parousia) 때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본다.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쉽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 미니스트리와 미션"(Kingdom of God Ministry & Missions)의 웹사이트에는 FAQ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주제의 질문들/

32 이 번역서의 출판을 의뢰한 부크크 출판사는 주문을 받은 후에 종이책으로 만들기 위한 디지털 파일을 계속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이 "옮긴이의 말"은 2020년 11월 11일에 작성한 것으로서, 이전 판에는 없는 그리스도아델피아(Christadelphia)/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s)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본문 속에 포함된 역주(譯註)들 가운데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 재수록했다.

답변들과 함께 관련 성경 구절들을 볼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류의 나라들을 대체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정부 조직)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사람의 아들인 예수의 지상 통치와 또한 그 이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게 되는 실제적인 나라라는 것이다.

*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다니엘 2: 44).

*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 1:31-33).

*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누가 22: 29-30).

그와 같은 믿음에 의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희망은 미래에 불멸성을 얻고 예수와 함께 통치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인데, 현재도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에게 더하시리라" (마태 6:33).

성서적 유니테리어니즘

버저드는 성서적 유니테리어니즘(Biblical Unitarianism)을 옹호한다. 나는 19세기 미국의 초절주의(Transcendentalism) 사상가이면서 시인이었던 랠프 월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에 대해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그가 유니테리언 교회 소속이었다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유니테리어니즘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할 기회는 없었다. 이번에 이 소책자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성서적 유니테리어니즘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물론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의 사회적 삼위일체론(social trinitarianism)과 상호내재 혹은 상호침투를 뜻하는, "주위를 돌며 서로 춤을 추는" 이미지와 연관된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론도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해의 한 방식으로서 적용할 만한 면이 있다고 본다.[33] 그런데 데일 터기(Dale Tuggy)의 『삼위일체란 무

33 세계의 신적인 가장(家長)에 대한 표상이 된 유일신론(monotheism)이 지상의 지배자들, 독재자들, 전제자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종교적 원형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위르겐 몰트만은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의 형성은 종교적 유일신론이 정치적 유일신론으로 변천하며, 정치적 유일신론이 절대주의로 변천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단 하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단일군주제도에 대한 표상을 극복할 때만이 가능하다"(위르겐 몰트만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김균진역 대한기독교서회 2017, 308)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론의 긍정적 의의를 찾는 시각이다. 몰트만의 사회적, 공동체적 삼위일체론은 특히 상호침투, 상호순환, 상호내재의 의미인 "페리코레시스" 개념을 활용하여, 지배와 억압이 없이 하나를 이루는

엇인가?』(*What is the Trinity?: Thinking about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에 의하면 기원 4세기 후반까지는 주류 그리스도인들은 유니테리언들이었는데, 현재 이 유니테리언 신학을 표방하는 그룹들은 웹사이트들을 통해 자신들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그룹들은 모든 점에서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위일체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터기를 중심으로 키건 챈들러(Kegan A. Chandler)와 마크 케인(Mark Cain), 그리고 션 피네간 (Sean Finnegan)은 UCA (Unitarian Christian Alliance)를 2020년 1월에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그들이 긍정하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은 아버지(the Father) 한 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인간 메시아(human Messiah)로서 현재는 주(Lord)와 구원자(Savior)로 고양되어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터기는 그리스도의 미래의 재림과 지상에 설립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은 자신들도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열렬히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초점은 유니테리언 기독교 신학의 촉진이기 때문에 유니테리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통일되지는 않은 종말론(eschatology)과 연관된 부분은 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이 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지상에 설립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장 강조하는 버저드의 태도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터기의 『삼위일체란 무엇인가?』에는 유니테리언 기독교인 그룹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그룹들 속에는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쉽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도 포함된다. 그리고 UCA의 웹사이트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에 이 삼위일체론이 기여한다고 본다. 이러한 설명은 신학적인(theological)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서적인(Biblical)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성서적 유니테리어니즘의 입장이다.

초기화면에 있는 “자원”(Resources) 항목을 클릭하면 그리스도아델피아 월드 와이드(Christadelphia World Wide)를 포함한 40여개의 다양한 유니테리언 기독교인 그룹들의 웹사이트들과 블로그들 목록이 링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버저드는 여호와의 증인과 함께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라는 뜻의 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s)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언급한 적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가 지상에서 활동하기 전에 천사장 미카엘(the archangel Michael)로 선재(preexistence)했다고 보고, 십사만 사천명으로 구성되는, 영적 존재로 부활할 “적은 무리”와 그들과 달리 땅에서 살 “큰 무리”로 신자들을 구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세기초에 영적 존재로 재림했다고 믿는다. 여호와의 증인은 소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통치체”(the Governing Body)를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보고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리스도아델피안들은 사탄(Satan) 혹은 악마를 초자연적인 개성적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의 악한 욕망 혹은 죄의 경향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 또한 그리스도아델피안은 지역분산적이며, 각 에클레시아(ecclesia)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권위적인 통제적 조직을 배제하고 “에클레시아의 자율성”(ecclesial autonomy)을 유지한다. 여호와의 증인을 시작한 찰스 테이즈 러셀 (Charles Taze Russell 1852-1916)과 그리스도아델피아를 시작한 존 토마스 (John Thomas 1806-1871)는 19세기 미국의 “회복주의”(Restorationism) 운동과 연관된다.[34]

34 “회복주의”는 이교주의(paganism)와 배교(apostasy)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신앙과 실천이 상실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초기 기독교와 신약성경의 모델로 돌아

그런데 성직자와 평신도 분리 (the clergy-laity split) 혹은 성직자제도 (sacerdotalism)를 부정하고, 그리스어로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에클레시아"들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아델피아는 대단히 특별한 성서적 유니테리언 기독교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랭크 바이올라(Frank Viola)와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이교에 물든 기독교』(*Pagan Christianity?*) (이남하 역 2011)라는 책에서 "[성직자의] 설교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아닌 그리스와 로마의 이교사상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강단 설교 사역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쓰고, 인간의 제도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모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와 같은 "유기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아델피아의 에클레시아가 근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35]

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추진된 기독교 내부에서의 운동이다. 원시주의(Primitivism)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초기(혹은 원시) 기독교의 회복을 추구하는, 18세기말에서 19세기말 사이에 주로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으로서 기존의 기독교 교파들을 거부하는 배타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세계 전역에 흩어진 형제들 네트워크"(The Worldwide Scattered Brethren Network)의 초기화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죽음 이후 그리스 철학과 동방 신비주의 종교들이 1세기 초기교회들에 영향을 급속하게 끼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성경적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이 '흩어진 소수'가 되었고 4세기, 5세기에 그리스 철학과 동방 신비주의 종교들이 교회의 공식화된 가르침들 속에 뿌리를 내렸으며 초기교회가 믿었던 그리스도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었다"고 쓰고 있는데, 회복주의는 그와 같은 인식을 출발점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35 현대의 기독교 설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설교대(pulpit)에서 행하는데, 목회자

반(反)삼위일체주의인 성서적 유니테리어니즘은 예수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아리안주의(Arianism), 즉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God the Father)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 가운데 최초이며 최고라고 보는 관점과 함께, 예수를 동정녀 탄생 때로부터 그 존재가 비롯된 인간이라고 보고 예수의 신격을 부정하는 소시니안주의(Socinianism)를 포함한다. 대체로 "성서적 유니테리어니즘"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소시니안주의와 가깝지만 파우스토 소치니(Faustus Socinus 1539-1604)의 사상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의 신격에 대한 논의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바트 D. 어만(Bart D. Ehrman)의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How Jesus Became God: The Exaltation of a Jewish Preacher from Galilee*) (강창헌 역 2015)가 참고할만한 책인 것 같다. 특히 그 책의 제 3장 "예수는 정말로 자신을 신[하나님]이라고 생각했나?"에서 다루어지듯이, 예수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pastor)에 의해 청중석(pew)에 앉아있는 수동적인 청중에게 하는 일종의 독백 혹은 잘 정비된 연설문 형식이다. 반면에 구약시대와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예언자들이나 사제들이 미리 작성된 대본에 따르지 않고 즉흥적으로 현안과 중대한 사안에 대해 토론의 방식으로 말했다. 정기적인 연설이 아니고 간헐적이며 유동적이고 청중에 의한 중간개입이나 적극적 참여가 있었다. 성직자-일반신도 분리가 없었으며 성직자제도가 없었다. 신약성경에서의 사제(minister)는 하인 (servant)을 뜻하는 디아코노스(diakonos)이다. 만인사제주의(universal priesthood of believers)를 토대로 하는 평신도들의 예배모임에서도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 (euangelion), 지식전달과 교육의 추구를 뜻하는 "디다케" (didache), 그리고 선포를 뜻하는 "케리그마" (kerygma)를 동시에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 이후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반적인 도덕적 권고를 뜻하는 "파래네시스" (paraenesis)를 대화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

도 주장하지도 않았다는, 성경에 대한 어만의 역사적 관점을 주목할 수 있다.[36]

영혼불멸설 지옥형벌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믿는 핵심적인 교리들 중에서 삼위일체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 외에 영혼불멸설과 지옥형벌설에 대해서도 버저드만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여호와의 증인과 그리스도아델피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성서적 유니테리어니즘 그룹들은 부정한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단"(Heresy)이라고 배척하는 것 같다.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McGarath)는 "이단"이라는 것은 "계획적이기보다는 우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뒤집고 동요시키고 심지어는 파괴하게 된, 기독교 신앙의 한 유형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Heresy: A History of Defending the Truth* 홍병룡 역 2011)고 주장한다. 기독교 세계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지닌 집단에 의해 억압당한 하나의 정

36 마커스 J. 보그 (Marcus J. Borg)는 "예수는 하나님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아닙니다. 심지어 신약성경 조차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등으로 말하지, 결코 그를 하나님과 단순하게 동일시하거나 같게 여기지 않습니다. ... 그는 한 유한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놀라움과 경이의 나날들』 *Days of Awe and Wonder* 김기석/정준화 역 153-154)라고 대답한다. 그는 같은 책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바라본다"(160)고 말한다.

통 신앙이 이단이고, 이른바 정통이라는 것도 싸움에서 이긴 하나의 이단이라고 보는 맥그라스의 관점이 설득력이 있다.[37] 물론 특정의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재림 예수로 신봉하게 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사교 집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다행히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16세기 유럽에서 삼위일체론을 부정했던 미카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가 화형을 당했던 것과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른바 "이단"의 믿음을 가진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박해는 여전히 있는 듯하다. 누가복음 9:40-41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신 데에서 볼 수 있는 관용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버저드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Happens When We Die?: A*

---

37 기원 325년 제 1차 니케아 공의회(Council of Nicaea)에서 채택한 신앙고백문 니케아 신경(Symbolum Nicaenum)에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며...."(very God of very God...)라는 표현이 나온다. 키건 A. 챈들러(Keagan A. Chandler)는 『예수의 하나님』(*The God of Jesus*)에서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이 표현이 비성경적(non-biblical)이라고 말한다(246). 그 공의회에서 예수를 창조된 존재로 보는 아리우스(Arius)파가 이단으로 파문당하고 아타나시우스(Athanasius)파의 삼위일체주의가 공인되어 정통(Orthodoxy)이 되었다. 이후 로마 교회의 정치권력의 유지와 증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견해들을 모두 이단으로 지명하고 배척하게 되었다.

Biblical View of Death and Resurrection)라는 제목의 책과 "하나님 나라: 미니스트리와 미션" 웹사이트에 있는 바이블 가이드, 그리고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성서적 유니테리어니즘에서 부정되는 영혼불멸설과 지옥형벌설에 대해 요약해 볼 수 있다.[38]

버저드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불멸성에 대한 성서적 견해"라는 장에서 "선한 사람들은 임종 직후에 즉시 하늘[천국]로 가고 악한 사람들은 '다른 장소'[지옥]로 간다는 대중적 관념은 인간이 불멸의 영혼, 즉 정의상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스적 신조에 토대를 둔 것이다. 그러나 성서적 견지에서 보면, 이 점에 대해 성경경전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인간은 본래 불멸이 아니라고 말한다"(8-9)고 쓰고 있다. 이어서 버저드는 "영혼"(soul)이란 "살아있는 존재"(living being)를 뜻하는 개념으로서 죽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이 영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덧붙인다(9).

"하나님 나라: 미니스트리와 미션" 웹사이트에 의하면, "영혼"으로 지칭되는 무형의 영적 실체는 불멸이고 죽음 이후에도 의식을 지니고 계속 산다는 관념 (어떤 종교에서는 탄생 이전부터 선재한다는 관념)은 고대 종교들에서 그리고 플라톤의 철학에서 발견된다. 죽기는 하지만 인간의 어떤 부분은 죽지 않는다는 관념은 에덴동산에서의 뱀의 거짓말로부터

38 히브리어 "네페쉬"(nephesh)/그리스어 "프쉬케"(psyche)가 "영혼"(soul)으로 번역되고, 히브리어 "루아흐" (ruach)/그리스어 "프뉴마" (pneuma)가 "영"(spirit)으로 번역된다. 히브리어 "스올" (sheol)과 그리스어 "하데스" (hades)가 "무덤," "구덩이," "지옥"으로 번역되고 (시편 16:10, 사도 2:27, 31), 죽은 자들의 장소를 지칭한다 (이사야 38:18).

시작되었는데 (창세기 3: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창세기 2:17: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디도서 1:2: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대조적인 이 거짓말을 인간이 받아들인 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 나라 계획에 대한 오해를 영속되게 만들었는데, “탈신체화된 영혼”(disembodied soul)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의 개념이 아니다. 반면에 플라톤의 죽음관은 “몸”과 “영혼”의 분리이다.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오리겐(Origen)과 어거스틴(Augustine)과 같은 초기 교부들에 의해 그러한 영혼관과 죽음관이 기독교에 편입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는 영원히 살 수 없게 하신다. 영생으로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그리스도로서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속에서 찾아진다(요한 3:36, 20:31, 요한1서 5:11-12).

오스카 쿨먼(Oscar Cullmann)의 『영혼불멸인가 죽은 자들의 부활인가?』(*Immortality of Soul or Resurrection of the Dead?*)에서도 영혼불멸설의 그리스적, 영지주의적(Gnostic) 기원에 대해 다루는데, 지옥형벌설의 토대가 되는 영혼불멸설이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혹은 그것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적 인간관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쿨먼의 소책자는 전경연의 번역으로 1965년에 출판된 복음주의신학총서 제 5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삶의 수고가 끝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해주면서 죽음의 정의를 내린다. 죽음은 “영혼”의 종말이다.

*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living soul]이 되니라”(창세기 2:7).

*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4)

죽음은 잠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없는 휴식이다 (열왕기상 2:10, 욥기 3:11-19, 시편 13:3, 전도서 9:10, 다니엘 12:2, 요한 11:11-14, 사도 7:59-8:2, 13:36, 고린도전서 15:6, 17-18, 28, 51-52, 데살로니가전서 4:13-15, 5:10).

구약성경에 의하면 선한 사람들이든 악한 사람들이든 죽으면 똑 같이 “스올”/“하데스”로 가게 된다. “지옥”으로 번역되는 “스올”/“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장소, 즉 무덤이며, 무덤 속에서의 죽은 자들의 상태는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잠”의 상태로 묘사된다. “스올”/“하데스”가 형벌과 고통의 장소일 수가 없는 것은 선한 사람들이든 악한 사람들이든 모두 죽은 후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게헨나(Gehenna)도 종종 “지옥,” “지옥불”로 번역된다. 게헨나는 고대 예루살렘의 계곡, 불이 계속 타오르는 쓰레기 소각장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악인들의 최후 심판과 파멸을 상징한다(계시록 20:14-15, 마태 25:41). “지옥불” 속에서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관념은 상징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geennan, Gehenna]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 5:22)

그런데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72%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문자적[실제적] 천국이 있다고 믿고, 58%가 문자적[실제적]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바트 D. 어만은 2020년 봄에 출판된 『천국과 지옥: 내세의 역사』 (*Heaven and Hell: A History of the Afterlife*)에서 그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런 견해는 구약성경이나 초기 기독교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예수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xviii). 어만은 그러한 개념 혹은 이미지의 형성은 그리스의 문학(Homer)과 철학(Plato)의 영향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교리를 계속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성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다"(『고통, 인간의 문제인가, 신의 문제인가』 이화인 역 335)라고 주장한다. 어만은 마태복음 10:28, 즉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 [Gehenna]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영혼을 "멸하는 것"(annihilation)은 결국 그 이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시한다고 『천국과 지옥: 내세의 역사』에서 설명한다(160). 서로 연관된 영혼불멸설과 지옥형벌설은 성경 속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진리(alētheia)의 [올바르고 충분한] 지식(epignosis)

위와 같이 간단히 살펴본 영혼불멸설과 지옥형벌설이 삼위일체설과 함

께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핵심적인 교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의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의들을 부정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7:11에 나오는 베뢰아(Beroea)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로 나는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성찰해 볼 계획이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데살로니가전서 5:21)라는 권고를 따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21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 혹은 진리를 정확히 아는 일이 열정과 성실성보다 우선적으로 더 중요할 것이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6:3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 [a different doctrine]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경고한 것과 같이 다른 교리 혹은 잘못된 믿음을 그리스도인은 경계해야 한다. 요한 2서 1:9의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the teaching]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들을 수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alētheia)의 [올바르고 충분한] 지식(epignosis)"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4). 물론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을 버리기는 쉽지 않다. 베뢰아 사람들처럼 능동적으로, 열린 자세로, "날마다" 조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나는 "열린신론"(Open Theism)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상호영향 관계를 중시하면서 하나님이 미래를 전적으로 예지(foreknowledge)하거나 예

정(foreordainment)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열어놓는다고 보는 것, 즉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자신과 인간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 변화가 가능한 상태로 미래를 열어놓는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인간들이 미래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미리 알거나 정하지 않고, 인간들의 행동에 따라 부단히 하나님은 자신의 태도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존 M. 프레임(John M. Frame)이 비판하듯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권"(『열린신학 논쟁』 홍성국 역 2005)을 부정하는 열린신론의 문제점들에 대해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리처드 라이스(Richard Rice)가 『열린신론의 미래』 (*The Future of Open Theism.* IVP Acadimic, 2020)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포함한 피조물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고 변화되지만, 결코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양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격을 규정하는 본질적 속성들, 즉 선함, 거룩함, 의로움, 진실성, 충실성, 그리고 사랑 등이라고 쓰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22).

1990년대 이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열린신론 혹은 열린신학(Open Theology)에 의하면 본질적 본성이 사랑인 하나님은 인격적[개성적] 존재로서 피조물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피조물들의 행동들과 결정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그 행동들과 결정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행로를 고착시키지 않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상호교류, 주고받기(the give-and-take)를 통해 하나님은 사건들을 그것들이 일어남에 따라 경험한다는 것이다. 열린신론에 대해서는 과정신론(Process Theism)과 함께, 그리고 버저드의 성서적 유니테리어니즘과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쉽의 "믿음들"(Beliefs)에 대해서도 나는 계속 "열린 자세로"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버저드와 함께 현재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쉽의 유튜브 영상들을 제작하는 카를로스 자비에(Carlos Xavier)는 “하나님 나라: 미니스트리와 미션”의 트레이시 자이코비취(Tracy Zhykhovich)와의 인터뷰 (“A Dialogue with Restoration Fellowship” 2019년 12월 27일)에서 자신들의 열린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언제든지 누구로부터든지 질문들이나 반대의 의견들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경직되지 않은 태도를 존중할 수 있다.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쉽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믿음들”을 우리말로 옮겨 소개한다.

●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8:6)가 계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한 이스라엘의 믿음체계에서의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마가 12:28 ff). 아버지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요한 17:3).

● 한 분 주 메시아 예수가 계신다. (고린도전서 8:6).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었다 (누가 1:35). 그는 세상의 토대가 형성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되었다 (베드로전서 1:20).

● 성령은 부활한 예수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수여되는 하나님의 개성적으로 운영되는 현존과 능력이다.

●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메시지의 회생(回生)적 힘에 의해 (마태 13:19, 누가 8:12, 요한 6:63) 믿는 자가 신성한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에 관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서 물 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다 (사도행전 8:12, 누가 24:27).

● 예수는 구속적, 대속적 죽음과 3일 후의 부활, 그리고 아버지의 우편으로의 상승 (시편 110:1, 사도행전 2:34-36) 이후 자신의 적들이 퇴치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신다 (히브리서 10:13).

●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 가시적으로 재림하셔서, 충성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고 (고린도전서 15:23), 천 년간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며 (요한계시록 20:1-6 등) 예언자들에 의해 약속된 땅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사도행전 1:6, 3:21, 26:6, 7).

● 모든 시대의 구원받은 자들이 미래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와 함께 새롭게 된 땅을 관리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6:2, 디모데후서 2:12, 요한계시록 2:26, 3:21, 5:10).

● 새 언약 (the New Covenant)의 중재자로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예수가 태동시킨 바와 같이 "율법 아래에서"가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 (히브리서 8:6, 9:15, 12:24), 그것은 시내 산에서 선포된 모세에 의한 언약과 대조적이며 그것을 대체한다 (갈라디아 3, 4, 고린도후서 3). 신체적 할례와 그 할례와 관련된 "전체 율법" (갈라디아 5:3) 문제들은 절기나 음식 율법들을 포함하여, 옛 언약의 관심사이지 새 언약과 관련이 없다. 골로새서 2:16-17에서 일시적인 율법과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새로움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비교하라.

● 사탄 [혹은 악마]에 의해 지배되는 초자연적, 우주적 악의 현존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 적들이나 인간 마음의 자연적인 악과 구별되면서 그것들에 덧붙여진다. 사탄은 사악한 영적 개성체, "이 시대의 신"(고린도후서 4:4, 에베소서 6:12 비교)의 이

름이다. 예수도 부르셨고 그들도 예수를 불렀던 비인간 개성체들로서의 악한 영들 (daimonia)이 존재한다 (누가 4:41 야고보서 2:19).

●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무기를 들고 적들이나 다른 국가들의 동료 신자들을 살해해서는 안된다 (마태 26:52, 요한 15:19, 18:36, 베드로전서 2:9-11, 역대상 22:8).

● 우리는 예외 없이 모든 낙태를 인간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한다.

● 성서는 [구약] 히브리 정전과 (누가 24:44) 희랍어 신약 경전들로 구성되는데, 하나님의 영감받은 권위적 계시이다 (디모데후서 3:16).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쉽의 믿음들 중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점이 여호와의 증인과 다르고 사탄의 존재에 대한 관점이 그리스도아델피아와 다르다.)

나는 "햇님이 동쪽에서 떠오르신다"라는 신화적 사유를 이해할 수 있듯이, 또한 하나님을 인간의 육체나 성정(性情)을 지닌 존재로 나타내는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 anthropomorphism)에 따른 성경의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예수의 존재양식에 대한 언어적 표현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서로 논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기독교 안에서 혹은 특정의 기독교 교파 내에서 다른 믿음을 갖게 되거나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배격하는 태도보다는 케어링크스 미니스트리스 (Carelinks Ministries)의 덩컨 히스터(Duncan Heaster)가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채 그리스도아델피아를 떠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스도아델피아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아델피아는 진리를 독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아델피아보다 더 크시다. 자신의 에클레시아와 교류를 그만두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다. 에클레시아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데에서 보여주는 관용의 태도가 그리스도아델피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마가복음 12:29에서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신명기 6:4의 말씀, 즉 내가 공부삼아 우리말로 옮긴 이 책의 저자 버저드도 유튜브를 통해 중계하는 일요일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낭송하는 "*Sh'ma, Y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한글 개역개정),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 주님이시니"(한국 킹제임스성서협회 『성경전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님YHWH는 우리의 엘로힘이며 주님YHWH는 하나다"(조철수, 『예수평전』) 등으로 다양하게 옮겨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서 번역의 문제와 함께 이른바 신앙의 언어 혹은 언어와 믿음의 연관성이 무척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 가운데 이 번역서의 본문 속 역주들 속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마커스 J. 보그 (Marcus J. Borg)가 쓴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왜 신앙의 언어는 그 힘을 잃었는가?』 (*Speaking Christian: Why*

Christian Words Have Lost Their Meaning and Power, and How They Can Be Restored) (김태현 역 2013)를 참고할 수 있다. 그 책의 서론에서 보그는 기독교적 언어의 해석 방식을 형성한 두 가지의 주요 원인들로부터 오해가 비롯된다고 말한다. 첫째는 "문자주의적 해석" (literalization or literalism)이고, 둘째는 "천국[혹은 천당]과 지옥"(Heaven and Hell)이라는 해석틀이다. 보그에 의하면,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해석틀 안에서 성서의 언어가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기독교인들과 그런 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고 변환된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열망이라는 해석틀을 더 중시하는 기독교인들로 양분된다. 두 번째 해석틀이 성서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에 가깝다고 보는 그는 "내세와 개인의 구원에 집중하는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꿈을 가려버린다. ...우리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하나님의 열망에 동참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교인이 될 수 있는가?"(338)라고 묻는다.

버저드와 보그의 성경해석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책들을 자세히 읽어야 하겠지만, 버저드의 방향도 성서 그 자체와 근대 이전의 기독교 전통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보그가 주기도문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를 해석하면서 "하느님 나라는 이 땅을 위한 것이다"라고 쓴 부분은 버저드의 관점과 다르지 않은 그의 태도를 보여준다. 보그는 "하느님 나라는 내세를 뜻하지 않는다. 주의 기도가 강조하듯 하느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과 관련되어 있다. 하느님 나라는 인간 왕과 황제가 아닌, 하느님께서 통치하실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삶을 말한다. 하느님 나라는 정

의롭고(모두가 부족하지 않고) 평화로운(더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다"(141)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설립을 기다리는 버저드의 방향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인다.

부와 자원의 편중과 양극화 등으로 인해 "정의롭지도" 않고,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세계적인 유행병 등으로 인해 "평화롭지도" 않은 날들을 보내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holiness]과 경건함[godliness]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베드로후서 3:11-12)라는 베드로의 권고를 새기게 되고, 또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 18:20)라는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된다.

또한 "원시교회는 신약성서도 없었고, 주도적인 신학도 없었으며, 전형적인 전통도 없었다. 이방세계에 기독교를 전한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도 받지 못했고, 오로지 위대한 경험만을 갖고 있었다"라고 쓴 영국의 어느 성서학자의 말에 보이는 "위대한 경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영적 경험이 성서와 신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나 지적 사고력의 배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블레즈 파스칼(Blaize Pascal)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성이나 지성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누구인가?
메시아 예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을 위한 호소

발 행 |
2020 년 9 월 28 일
저 자 | 앤서니 버저드 지음/정형철 옮김
펴낸이 | 한건희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07.15.(제 2014-16 호)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19 SK 트윈타워 A 동 305 호
전 화 | 1670-8316
이메일 | info@bookk.co.kr

ISBN | 979-11-372-1914-4
www.bookk.co.kr
ⓒ 정형철 2020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